

麗末 性理學派의 形成

慶北大學校 助教授 文 曠 鉉

《目 次》	
I. 性理學의 傳來와 展開	猛將들
II. 崇儒排佛學派	IV. 三隱攷
III. 排佛學派의 宗師 鄭道傳과 同學派의	V. 性理學派의 淵源

I. 性理學의 傳來와 展開

漢唐以來의 訓詁學을 輸入한 신라 고려의 儒學界는 訓詁學이 支配하였다. 그 中 傑出한 六儒는 海東孔子의 稱을 듣는 崔冲이었다. 그는 國立大學 國子監의 權威를 壓倒하는 私立大學派 十二公徒의 嚆矢인 文憲公徒를 開創한 儒者로 高麗 儒學 發達에 貢獻했다.

그후 武班 軍事指揮者들에 의한 계속되는 軍事 쿠데타는 國家 全盛의 世를 演出하던 門閥貴族의 沒落을 가져왔다. 이 支配層의 交替되는 過程에서 北方 遊牧民族의 侵略과 支配로 인하여 半世紀에 걸친 門閥支配層의 沒落과 江華島 逃避, 遷都支配는 高麗全土에 걸쳐 地方吏族이 中心이 된 士大夫 階層의 成長을 가져왔다. 新進 支配層으로 登場한 이들은 高麗의 傳統的 指導 이데오로기인 佛敎와의 鬭爭을 不可避케 했다

그리고 이들 신진 士大夫 계층은 고려의 傳統的 支配 질서와 이를 지탱하는 지도이념인 불교와, 나아가서는 고려의 王室을 지탱하는데 큰 支柱가 되어온 몽고 지배체제의 武力장치에 對한 抗爭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封建士大夫계층은 이들 舊秩序와 對抗하는 그들의 指導理念으로서 新儒學인 性理學을 그들의 統治의 學—그들의 指導 이데오로기로써 受容하게 되었고, 佛敎를 배척하는 斥佛論의 旗幟를 높이 들고 萬丈의 氣燄을 뽐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舊秩序 옹호자들의 親蒙派에 對하여 親明論을 들고 나왔다. 결국 親蒙派政權에 對한 親明 性理學派의 挑戰은 終局的 勝利로 革命이란 거창한 歷史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斥佛學派形成의 史的背景은 高麗社會의 封建的 支配體制의 矛盾의 露呈에 있다. 많은 矛盾을 內包하여 그 모순이 極大化되었다. 寺院은 龍대한 莊園과 土地를 所有하였으며, 長生庫와 寶杼 殖利財團의 運營은 莫大한 財富을 蓄積하였다. 全國의 聖山名區에 들어선 巨大한 寺院은 龍대한 僧侶群으로 肥大하고, 그들이 所有한 田莊

奴婢 隸民의 規模는 實로 龍大한 것이었다. 이로 因하여 國家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絶大한 것이었고, 新進士大夫 계층과의 利害 상충은 큰 것이었다. 여기에 이들 肥大한 寺院經濟의 收奪制體下에서 天下의 백성을 解放하고 國家運命의 타개는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麗末의 斥佛運動은 唐 會昌 2년에서 4年間에 걸친 唐武宗의 佛教 彈壓인 會昌廢佛(法難)과 그 史的 意義가 같다고 보겠다. 當時 佛教의 壓迫的인 支配下에서 빈자상태의 唐나라 운명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것은 不可避한 歷史的 운동이었다.

唐나라도 高麗와 같이 中期 以來로 寺院의 濫設과 僧尼의 急增은 佛教敎團의 全盛을 가져와 徭役이 면제된 僧侶와 寺院土地兼併의 極大화와 佛教行事로 인한 國費의 부담 압박은 廢佛의 一大手術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이에 斷行된 敎團의 肅正과 僧侶의 私有財産沒收와 寺院의 회철로, 4萬餘 寺院의 철 폐 26萬 餘人의 僧尼還俗 15萬人의 奴婢 沒收, 數千萬頃의 寺田 沒收를 斷行했다.¹⁾

이 엄청난 還收 數値를 보더라도 唐武宗의 廢佛政策은 不可避했던 것이다.

高麗도 正히 이와 같았으니 崔滋의 글에

山中菴居 歲增且百 其大寺則有報德表訓長安等寺 皆得官爲營葺 展閣穹窿 彌漫山谷 金碧輝煌 眩奪人目 至如常住經費 與財有庫 典賣有官 負郭良田 遍于州郡 又江陵淮陽二道年租 入直于宮 盡勒輸山 雖值凶荒 未見蠲減 每遣使人 歲支衣糧油鹽之具 必視無闕 其僧大抵不隸逃其役 民避其徭 常有數千萬人 安坐待哺 而未聞有一人有如雪山勤修而得成道者 復有甚者 誑誘人云 一觀是山 死不墮惡道 上自公卿下至士庶 携妻挈子 爭往禮之 除水雪沍寒 夏潦滔溢 路爲之阻 遊山之徒 絡繹於道 兼有寡婦處女 從而往者 信宿山中 醜聲時聞 人不知恠 或有近侍函命馳驛 降香歲時不絕 而官吏畏威勢 奔走埃命 供億之費 動以萬計 並山居民 困於應接 至有怒且誓曰 山胡不在地坑者²⁾

라는 글을 볼 때도 高麗의 佛教 廢害는 一大 手術의 斷行을 不可避케 하고 있다. 여기에 이 거창한 手術作業을 自任한 士大夫 계층의 지도 이념이 性理學이었다.

性理學은 一名 宋學, 朱子學, 程朱學, 道學, 理學, 義理之學, 濂洛關閩之學이라 稱하는 新儒學을 말한다. 이 性理學은 周敦頤, 張載, 程顥, 程頤을 거쳐 宋憲에 의하여 大成된 宋代의 理氣哲學이다. 이 性理學은 周張二程으로 이어지는 窮理盡性의 學과 歐陽修 司馬遷으로 이어지는 大義名分 尊王攘夷의 二大 系統을 朱子가 集大成한 것이다.³⁾ 이들의 大義明分論은 高麗 新進 士大夫 계층의 反蒙古 野蠻族, 親明 事中華 思想의 源泉이 되었다.

고려가 性理學을 도입한 것은 宋學의 集大成者인 朱子가 죽은지 一世紀가 지나서

1) 龜川教信: 會昌의 廢佛について(支那佛敎史學 6-1)參照.

2) 崔滋: 送僧禪智遊金剛序(拙藁千百卷之一).

3) 武內義雄: 『支那思想史』 p. 274(岩波書店).

南宋도 亡하고 胡族인 元王朝가 中原을 支配하던 元 至元 23年 1286년에 元나라에 使臣갔던 安裕(珣)에 의해서였다.

그는 실로 斯文의 興起에 위대한 공헌을 한 儒者로 1275年(충렬왕 元年)에 尚州判官으로 나갔을 때 벌써 백성을 현혹시키는 巫覡을 엄중히 금하여 미신을 타파했다. 官職이 參知機務行東京留守集賢殿大學士 鷄林尹 僉議參理修文殿太學士 僉議侍郎贊成 事判圖司事가 되어 人臣을 極하고 文衡을 典했다. 그가 文廟의 荒廢를 보고 慷慨하여 읊은 詩⁴⁾는 儒敎의 衰退가 至極에 達하였음을 개탄하고 文教의 振興을 自任한 것이었다. 公은 文教의 復興에 心血을 기울여 瞻學錢이란 獎學財團을 설치하고, 國學大成殿을 重建하여 儒生을 教授했다. 孔子와 七十二賢의 畫像과 祭器 樂器와 六經과 諸子書와 史書를 구입하고 朱子全書를 轉寫해 와서 潛心 연구하여 이를 儒學의 正統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公의 偉大한 斯文復興策은 公이 高麗儒學提擧가 되어 忠烈王과 公主를 扈從하여 元의 大都에 갔다가 거기서 수입한 것이다.

그는 晦庵 朱憲을 崇慕하여 自號를 晦軒이라 했다. 그의 功績은 性理學이 海東에 受容되는 歷史的 契機를 마련한 點에 있다. 그는 이 功績으로 因하여 文廟에 配享되는 榮光을 입었다.

이로 因하여 安裕를 고려 性理의 濫觴이라 한다.

安裕의 學統을 계승한 首弟子에 白頤正은 호를 彝齋라 하는 儒學者로 1298년에 忠宣王을 따라 元나라 燕京에 가서 10年間 머물어 正式으로 性理學을 工夫하고 性理學의 書籍도 함께 수입하여 가지고 귀국하여, 國內에 傳布하니 이것이 名實相符한 東方에 程朱學의 濫觴이 되었다. 公은 그의 學을 首弟子인 李齊賢과 朴忠佐에 傳授했다.⁵⁾

安裕의 學統을 傳受한 門人으로 異彩는 禹倬이다. 그는 號를 易東이라 했다. 公은 寧海司錄으로 부임해서 民心을 현혹하는 妖神의 祠堂을 철폐하여 迷信을 타파한 儒者로 官이 成均館祭酒에 올랐다. 公은 經史에 通했으며, 元나라로부터 程朱學의 書籍이 수입되었으나 이를 解得할 者가 없어, 이를 潛心연구하여 해득한 儒學者다. 특히 그는 程伊川의 易傳을 閉門月餘에 潛心 연구하여 해득하였으며⁶⁾ 東國에 있어서 易學 연구의 開祖를 이루었다. 周易은 三國時代부터 盛히 受學했으나 公에 이르는 易經 연구에 新紀元을 劃했다. 朱憲가 易을 卜筮로 解釋한데 對하여, 程頤의 易傳은 義理를 爲主로 해석하였으므로 朱憲의 易과는 解釋이 달랐다. 象數學의인 點이 아니었던 것은 老莊의 玄理로 해석한 王弼의 易과 對照를 이루어 程頤는 孔孟의 道로 해석했던 것이다. 公은 東方에 易理의 學을 哲學的 理學的 見地에서 工夫한 第一人者로 以

4) 香燈處處皆祈佛 簫鼓家家盡賽神 惟有數間夫子廟 滿庭秋草寂無人(高麗史 卷 105 列傳 卷第 18 安珣傳).

5) 李齊賢:『櫟翁稗說』. 朴世采:『東儒師友錄』.

6) 高麗史卷 109 列傳第 22 禹倬傳.

後 易學의 東傳에 공헌했다.

安裕의 高弟로 權溥는 號를 菊齋라 하는 儒學者로 官이 人臣을 極한 僉議政丞判摠部事領都僉議司事 府院君에 封해졌다. 公은 朱子의 四書集註를 刊行하여 朱子學 發展에 貢獻했다.

白頤正의 性理學 學統을 繼承한 首弟子에 그의 사위 益齋 李齊賢이 있다. 公은 麗朝一代를 代表하는 儒學者로 道德之首요 文章之宗⁷⁾이었다. 忠烈王代에 科擧에 及第하여 忠烈, 忠宣, 忠肅, 忠惠, 忠穆, 忠定, 恭愍王代에 걸친 7朝歷任에 官至 首相하니, 官이 三重大匡領藝文館事 門下侍中 鵝林府院君에 封해졌다. 1314年 忠肅王元年 白頤正門下에서 性理學을 工夫하였다. 이해에 元都에 있던 忠宣王이 萬卷堂을 세워 公을 초청하자, 元都燕京에 들어가서 萬卷堂에서 當代 中原第一級 碩學인 姚遂 閻復 趙孟頫 元明善과 交遊하여 當代學風을 고루 섭취하였으니, 이 때 그는 中國에 流行하던 程朱學을 全然 外面할 수 없었을 것으로 思料된다. 더욱 入元 前 師傅인 白頤正으로부터 程朱學을 受學한 事實을 감안할 때 더욱 이와 같은 可能性을 想定케 한다. 從來 學界서 公이 性理學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詩文에만 힘써 東方性理學形成에 차질을 가져왔다⁸⁾는 評은 不當하다고 하겠다. 그는 累代의 國家危難에 當하여 빛나는 丹忠으로 匡救輔翼之功이 卓邁하였으며, 高麗의 佛教 全盛之世에 王師 辛旽을 攻擊하고 儒教를 闡明하고 佛教를 예리하게 비판했다. 公은 忠惠王이 薨하고 忠穆王이 襲位하자 都堂에 上書하여,

今我國王殿下 以古者元子入學之年 承天子明命 紹祖宗重業 而當前王顛覆之後 可不小心翼翼 以敬以慎 敬慎之實莫如修德 修德之要莫如饗學 今祭酒田淑蒙 已名爲師 更擇賢儒二人與淑蒙 講孝經語孟大學中庸 以習格物致知誠意正心之道 而選衣冠子弟 正直謹厚好學受禮者十輩爲侍學 左右輔導 四書既熟 六經以次講明 矯奢淫佚聲色狗馬 不使接于耳目 習與性成德造罔覺 此當務之莫急者也⁹⁾

라는 글을 보면 그는 儒教 즉 性理學의 教育的 重要性을 力說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佛教에 對한 태도는 忠宣王이 元나라에서 公에 묻기를

우리 나라는 古來로 文物이 中華와 같다고 일컫더니 지금 학자들이 모두 佛教를 좇아서 章句를 익히는 것은 어찌된 셈이나.

고 한데 대하여,

昔太祖經綸草昧 日不暇給 首興學校 作成人材 一幸西都 遂命秀才廷鶯爲博士 教授六部生

7) 李穡撰: 鵝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東文選 126卷).

8) 金忠烈: 性理學의 韓國의 展開 p. 8(大東文化研究 13輯).

高麗史 第110列傳 第23 李齊賢傳에 「然不樂性理之學 無定力 空談孔孟 心術不端 作事未甚合理 爲識者所短.」.

9) 高麗史, 上揭列傳.

徒 熙彤帛以勸 頒陳祿以養 可見用心之切矣 光廟之後 益修文教 內崇國學 外列鄉校 里痒黨序絃誦相聞 所謂文物侔於中華 非過論也 不幸穀王季年 武人變起 玉石俱焚 其脫身虎口者 逃遼窮山 蛻冠帶而蒙伽梨以終餘年 若神駿悟生之類是也 其後國家稍復文治 雖有志學之士 無所於學 皆從此徒而講習之故 臣謂學者從釋子學 其源始此 今殿下廣學校謹庠序 尊六藝明五教 以闡先生王之道 孰有背真儒從釋子哉¹⁰⁾

라고 대답한 것에서 공의 崇儒背佛의인 태도를 알 수 있다. 즉 학교를 넓히고 庠序를 崇尚하고 文藝를 높이고 五倫의 教를 밝혀 先王의 道를 綽명하시면, 그 누구가 眞儒를 배반하고 불교를 다르겠습니까고 했다. 그는 今世에 學者들이 佛敎를 따르게 된 것은 武士의 亂이 일어난 후 軍事政權 下에서 文臣들이 모두 참변을 당하고 겨우 살아 남는 좁은 길은 산중에 도피하여 은둔하여 冠帶를 벗어 버리고 伽梨를 입어 餘生을 마치니, 세상의 지식인이 모두 沙門에 기탁하게 되었다 하며, 그후 文治를 회복함에 이르러선 學問에 뜻을 둔 人士들이 배울 곳이 없어 모두 佛者에게 나아가서 글을 배우게 되어, 一世의 學者들이 佛敎를 좇게된 근본 원인이 여기에서 생겨났다고 보았다.

公은 東國漢文學史上 最高의 桂冠詩人으로 推擧되며, 南船北馬로 中原大陸까지 涉獵한 그의 浩瀚한 文章은 當世에 冠絶했다. 그의 學統은 白頤正과 權溥의 學을 傳受하여 義理之學을 倡明하여 命世의 儒宗이 되어 稼亭 李穀, 牧隱 李穡父子에 傳授되었다.¹¹⁾ 공은 知貢舉로 稼亭 李穀과 牧隱 李穡을 위시하여 一世의 名士를 取擧하여 弟子로 삼았다. 그리고 공의 門徒가 一代 文運을 支配한 것은 공을 恭愍王계 혈통은 辛旽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足以 證 證할 만하다.

儒者稱座主門下 布列中外 互相干誼 恣其所欲 如李齊賢門生 門下見門生 遂爲滿國之盜 儒者之爲害如此¹²⁾

이로서 볼 때 그의 門徒들이 온 조정에 가득했음을 알 수 있겠다.

李益齋의 門人으로 稼亭李穀은 都評義使司의 胥史로 起身하여 忠肅王代 文科에 及第하고 나아가 元나라 制科에 第二甲으로 及第하여, 元나라 翰林國史院檢閱을 거쳐 元에서 大小 官職을 歷任하고, 本國에 와서 都僉議贊成事 韓山君에까지 오른 儒者로 益齋의 學을 傳受하여 文章과 經學으로 一世에 聳動했다. 그는 아들 牧隱 李穡에 家庭之學을 傳授했다. 李穀은 佛敎를 信仰하여 아들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牧隱 李穡은 家庭에서 學을 受業하고 益齋丈에게 受學하여 益齋의 學統을 계승하였다. 牧隱은 高麗末에 君臨한 大文豪요 鴻儒碩學으로서 文學, 政治, 儒學에 그가 끼친 공헌은 實로 위대하다. 그는 元나라에 가서 生員으로 國子監에 入學하여 性理學

10) 上揭書.

11) 上揭書, 權近: 鄭三峯道傳文集序(陽村先生 文集卷之 16).

12) 上揭書.

을 正式으로 工夫하였다. 그는 絶代의 天才로 征東行省 鄉試에 首席合格하고 元나라에 가서 會試에 壯元 殿試에 榜眼으로 及第하여 元에서 應奉翰林文字承事郎同知制誥兼國史院編修官을 歷任하고 귀국하여, 累遷하여 官이 寶文館 藝文館大提學 成均館大司成으로 文衡을 典하고, 門下侍中 韓山府院君에 이르렀다. 公이 東國性理學에 貢獻한 공적은 可謂 空前絶後다. 累掌禮闈에 所擧多名士하여, 一世의 鴻儒碩學이 모두 그의 門下에서 輩出되지 않음이 없고, 蔚然히 崛起하여 一大文運에 기여하고 그의 門下弟子들이 麗末의 大義明分과 扶植綱常의 旗幟를 든 忠臣 烈士가 모두 그의 門下에서 나오고, 朝鮮革命의 主役인 經世의 棟樑이 그의 門下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었다. 麗末의 綺羅星 같은 新進 性理學者를 養成하여, 그들을 이끌고 太學에서 性理學을 講明하여 이에 性理學派가 形成崛起하는 一代 文運을 高동들었으니 그는 완전히 東國 性理學派의 開祖요 淵藪였다. 世에서 그의 忠節을 의심하고¹³⁾ 그의 性理學에의 功獻을 過少評價함¹⁴⁾은 正鵠을 맞춘 論評에서 멀다 하겠다.

麗末의 性理學派의 大宗師는 무어니 해도 牧隱 李穡을 除外하고는 따로 論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는 始終 高麗를 爲한 忠節에 殉한 忠臣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高麗 漢文學을 集大成한 文豪요 李朝漢文學의 淵源이 되었다.

公은 國學 成均館을 再建하고 이의 長이 되어 直接 一世의 名儒와 함께 講議하고 性理學을 倡明하는데 前衛에서 斷然 性理學界의 領袖로 君臨했다.

II. 崇儒排佛 學派

高麗末에 이르자 國敎 佛教는 廣大한 莊園을 所有 財富을 축적하고 肥大해져 生民의 經濟를 壓迫하였으며, 僧侶層의 急激한 팽창은 國家의 存亡에 관계되는 荼毒을 끼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武士叛亂과 軍事執權 時代에 더욱 加速化되었고, 몽고의 침략기에 더욱 紊亂을 極했다. 이와 같은 佛教의 폐해는 이미 國初부터 문제가 되었으니, 成宗은 名儒 崔承老를 起用하여 佛教를 억압하고, 儒敎를 장려하는 儒敎政策을 強行했다.

成宗朝 文治의 牛耳를 쥐었던 장본인 崔承老는 成宗께 올린 글에서

加以酷信佛事 過重法門 常行之齋設既多 別願之焚修不少 專求福壽 但作禱祈 窮有涯之財力 造無限之因緣 自輕至尊 好作小善 又於出入宴遊 莫不窮奢極侈 以其目前無事 將謂法力使然…竊聞聖上爲設功德齋 或親碾茶 或親磨麥 臣愚深惜聖體之勤勞也 此弊始於光宗 崇信譴邪 多設無辜 或於浮屠果報之說 欲除罪業 浚民膏血 多作佛事 或設毘盧遮那懺悔法 或齋僧於毬庭 或設無遮水陸會於歸法寺 每值佛齋曰必供乞食僧 或以內道場餅果 出施丐者 或以新池穴口

13) 玄相允: 朝鮮儒學史, p. 24.

14) 金忠烈: 前揭書, p. 8.

與摩利山等處魚梁 爲放生所 一歲四遣使 就其界寺院 開演佛經 又禁殺生 御厨肉膳 不使宰夫屠殺 市買以獻 至令大小臣民 悉皆饑皆悔 擔負米穀柴炭菽豆 施與中外道路者 不可勝記 然以既信讒慝 視人如草芥 誅殺者堆積如山 常竭百姓膏血 以供齋設 當是時 子背父母奴婢背主 諸犯罪者 變形爲僧及遊行丐乞之徒¹⁵⁾

라는 記事를 읽을 때 佛教의 폐단을 짐작케 한다. 하물며 그 폐단이 極大化한 麗末에는 筆舌로 名狀을 絶할 지경이었다. 前記한 忠肅王時人 崔盜의 글에서 본 바와 같이¹⁶⁾ 佛教가 얼마나 人民의 莫重한 부담이며, 國家의 커다란 病弊인가를 헤아릴만 하다. 李朝初期의 學者인 成倪의 글에 依하면

我國崇奉佛教久矣 新羅故都 招提多於閭閻 松都亦然 王宮甲第 皆與佛宇相連 王與後宮詣寺 燒香無虛月 設八關燃燈大禮 皆依於佛 王之第一子爲太子 第二子則削髮爲僧 雖儒林名士亦皆倣之 寺刹皆有威獲 多者或至千百 爲住持者 或擁婢妾 其豪富勝於公卿 置十二宗 以掌釋教 僧多有封君辟除者¹⁷⁾

라 한 글을 볼 때 佛教의 병폐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麗末에 오면 寺院은 龍大한 農莊과 奴婢를 所有하고 엄청난 數의 僧侶人口의 증가로 因하여 新進 士大夫 層의 權益과 正面으로 충돌을 不免한다. 士大夫 계층은 寺院 經濟의 壓迫으로부터 그들의 田莊과 佃戶를 보호할 필요성과 그들의 財富의 확보와 國家의 財政打開을 위해서는 必然的으로 排佛政策 路線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麗末의 性理學者는 二大別한 二群으로 區分되니, 하나는 元나라의 首都 大都 燕京에 來往 留學한 一群의 人士와, 明의 首都 金陵(南京)에 來往한 一群의 學者들을 들 수 있다. 前者는 親元派에 속하는 人士가 大宗을 이루었다. 安裕, 白頤正, 權溥, 李齋賢, 李穀, 李穡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의 排佛崇儒政策은 穩健鄭重했다. 後者에 屬하는 一群의 學者들은 親明派에 屬하는 儒者들로서 性理學者들로서는 보다 新進氣銳한 엘리트들로서 過激한 排佛崇儒派들이었다. 이에 屬하는 性理學者들로서는 鄭夢周, 李崇仁, 鄭道傳, 權近 등이 이에 屬한다.

이와 같은 崇儒排佛論의 濫觴은 麗末의 性理學者 李穡에 연유한다. 李穡은 性理學이 學界를 支配하던 元의 國子監에서 生員으로 三年間 正式으로 工夫하고 性理學을 解得한 儒者로서, 그 아버지 稼亭의 當喪을 입어 歸國하여, 服中에 恭愍王 元年에 國王께 올린 上書中에 佛教의 폐해를 辛辣하게 지적하여

佛氏入中國 王公士庶尊而事之 自漢迄今 日新月盛 肆我太祖 化家爲國 佛利民居 參伍錯綜 中世以降 其徒益繁 五教兩宗 爲利之窟 川傍山曲 無處非寺 不惟浮屠之徒 浸以卑陋 亦是國

15) 高麗史卷 第93 列傳第 6 崔承老傳, 高麗史卷第 3 成宗世家

16) 崔盜: 前揭書, 東文選 83 卷.

17) 成倪: 慵齋叢話卷之八.

家之民多於遊食 識者每痛心焉 佛大聖人也 好惡必與人同 安知已逝之靈 不恥其徒之如此也 故臣伏乞明降條禁 已爲僧者 亦與度牒而無度牒者 即充軍伍 新創之寺 並今撤去 而不撤者 即罪守令 庶使良民 不盡禿緇 臣聞殿下奉事之誠 尤篤於列聖 其所以祈永國祚者 甚盛甚休 然以臣之恩 竊惟佛者至聖至公 奉之極美 不以爲喜 待之甚薄 不以爲怒 況其經中 分明有說 布施功德 不及持經 聽政之餘 怡神之暇 注目方等 留心頓法 無所不可 但爲上者 人所則效 虛費者財所耗竭 防微杜漸 不可不慎 孔子曰敬鬼神而遠之 臣願於佛亦宜如此 臣亦知逆鱗必至於碎首 但恐濫觴或至於滔天 故冒萬死不惜一言¹⁸⁾

이와 같이 牧隱은 佛教의 弊를 지적하여 과감히 이를 是正하기를 주장했다. 그는 師傅 李益齋의 宛曲한 排佛의 態度를 承繼하여 加一層 激烈한 佛教의 폐해를 주장하였다. 그는 上書中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殿下께서 佛을 받들어 섬기시는 精誠이 列聖中에서 더욱 敦篤하다」고 하는 恭愍王께의 上疏였는지라. 이와 같은 斥佛論은 죽음을 각오할만한 용기가 없으려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실 그는 上書에서도 말했듯이 「逆鱗을 거슬이면 반드시 머리가 부서질 것이옵니다만, 작은 일이 커지면 막기 어려울 것이오니, 이 때문에 만 번 죽을 것을 무릅쓰고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비장한 각오로 上書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도 공민왕께는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는 佛을 大聖人이라 하고 至聖至公이라고 표현 찬양하면서 불교의 폐해를 지적하고 예리하게 이의 시정을 건의했다. 當時에 이와 같은 표현은 백번 至當한 것이다. 好佛의 英主 공민왕께 올리는 글은 그와 같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있어서 牧隱은 佛教를 理解했고, 그의 先親의 遺志를 이어 坐兀南山聽公의 간절한 원유로 人子로서 先親에 孝道하고, 優遇받은 玄陵에 對한 忠誠心에서, 위로는 先王의 冥福을 빌고 아래로는 先考의 뜻을 繼承하는 忠孝心에서, 驪興神勒寺에서 大藏經을 印刊하고 大藏閣을 창건했던 것이다.¹⁹⁾ 그리고 그는 一代의 文豪로 高僧大德과 親交로 맺고 佛家의 記文로 많이 썼으니

慈悲嶺羅漢堂記, 長城縣白巖寺雙溪樓記, 香山安心寺金刹石鍾記, 幻菴記, 砥平縣彌智山澗筆菴記, 砥平縣彌智山龍門寺大藏閣記, 寶蓋山石臺菴地藏殿記, 巨濟縣牛頭山見菴禪寺重修記, 無隱菴記²⁰⁾.

등 無數한 佛教에 文字를 남긴 知佛의 學者였다. 그 뿐만 아니라 當代의 儒者들이 거개가 排佛과 佛教의 폐해의 지적 痛駁은 儒者로서의 當然之事로 생각했으며, 그의 內的 生活이나 家庭內的 個的 生活에서는 好佛의 態度는 經世治國의 經綸과는 別個의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點 牧隱 다음 世代의 氣銳하고 過激한 排佛論者들과는 軌를 달리했다. 이로 因하여 牧隱은 그의 反對派들로부터 신랄한 攻擊을 받았

18) 高麗史卷 第115 列傳 第28 李穡傳

19) 李崇仁: 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東文選 第76卷, 陶隱集 卷之三)

20) 李穡: 牧隱詩文集 卷三.

다. 그의 政敵이던 左司議 吳思忠 門下舍人 趙瑛 등이 恭讓王께 上疏하여 李穡父子의 罪狀을 論하여 極刑에 處하라고 하는 疏文의 中에 그의 佛敎에 對한 태도를 공격하여

又以儒宗佞佛 印成藏經 擧國爭效 惟恐不及 以誤風俗 使子弟言於人曰 非吾父意 追祖穀之志耳 是則陷父於異端而不之恤也…立於百官之上 了無忤色 曲學阿世 飾詐釣名²¹⁾

라고 猛攻을 받았다. 排佛이 本格化한 恭讓王代의 價値觀의 尺度로 禔王代의 牧隱의 事實을 非難함은 度에 지나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牧隱의 容佛의인 學的 태도를 後世의 史家は

穡天資明敏 博覽群書爲詩文 操筆即書 略無凝滯 勉進後學 以興起斯文爲己任 學者皆仰慕 掌國文翰數十年 屢見稱中國 平生無疾言遽色 不露圭角 不治生產 雖至屢空 不以爲意 然志節不固 無大建白 學問不純 崇信佛法 爲世所譏²²⁾

라고 그를 評하여 斯文에 對한 功績을 찬양하면서도 佛敎의 이해로 因하여 學問이 不純하다는 酷評을 아울러 받았다. 徐居正도 이를 論하여

臣等按 昔傅奕論佛氏之非 蕭瑀曰 佛聖人也 非聖人者無法 不免後世之譏 今穡之疏名曰 抑異端 一則曰佛大聖人也 一則曰佛至聖至公也 似抑而實揚諷一而勸百 欲免佞佛之誚得乎²³⁾

라고 그의 佛敎에 對한 恭愍王元年의 上書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것은 너무도 심한 酷評이다. 그가 지적한 佛敎의 폐단을, 실제로는 억압하는 척하면서도 선양하고 하나를 꼬집는 것 같이 하면서 백을 권하는 태도라 한 것은 牧隱의 上書의 本意에 벗어남이 너무도 懸隔한 것이다.

牧隱은 元에서 돌아와 上書에서 國學의 再建과 文教의 振興을 力說했으며, 공민왕 16년에는 國學을 重修하여 몸소 成均館 大司成이란 총책임자로 있으면서, 鄭夢周, 李崇仁 等 一代 名儒를 學官으로 任命하여 儒敎 特히 性理學을 土着化시킨 功勞는 위대한 것이었다. 當時 斯文의 領袖 牧隱의 밑에서 名講으로 이름 높던 一代 名儒인 鄭夢周, 李崇仁, 金九容, 朴尚衷, 朴宜中 등이 모두 그의 門人이었던 것이다. 이 結果 文風이 復振하여 燦然하였으니, 고려사에 이를 評하여

先是館生不過數十 穡更定學式 每日坐明倫堂 分經授業 講畢 相與論難忘倦 於是學者益衆 相與觀感 程朱性理之學始興²⁴⁾

이라고 文運의 蔚然한 勃興과 性理學의 始興을 찬양했다. 이는 오로지 牧隱의 偉功

21) 高麗史 卷115 列傳 第28 李穡傳.

22) 上揭書

23) 東國通鑑 卷第46 恭愍王一.

24) 前揭 註 22.

에 屬한다 하겠다. 이와 같은 學風의 盛觀을 當時文運에 寄與한 成均館學官이던 李崇仁의 글에서도 다음과 같이 記述했다.

昔者烏川鄭丈達可 仁山崔丈彥父 密陽朴丈子虛爲教官成均 予亦猥廁其列七八年 是時學徒日臻 齋廡殆不能容 教官晨興入館門 既升堂 學徒序立庭東西 拱手罄躬行禮訖 各執所治經 左右前後如牆進 而教官中學徒受業竟 又相發難有所折衷也 而後罷 讀書聲窮日不輟 予數人喜形於色相 謂曰斯文其興矣乎²⁵⁾

라는 이 글을 볼 때 文風이 煥然히 興起한 것을 眼前에 彷彿케 한다. 그리고 性理學의 普及倡明이 文學의 大不營인 國學에서 이루어졌고, 이 때 牧隱을 위시한 諸學官에 講義를 받은 諸學生들에 의하여 後日의 激烈한 崇儒斥佛운동이 맹렬히 展開된 것을 감안할 때 牧隱의 功績은 實로 偉大하다 하겠다.

牧隱의 佛教에의 理解를 非難 攻擊한 後世의 편협한 儒者들의 態度는 그 偉大한 牧隱의 達觀한 學의 境地를 쳐다보지도 못한 俗物들의 毀貶이라고 보겠다. 性理學을 集大成한 文公朱子도 그의 性理學의 完成에 如何히 禪學에의 工夫가 寄與했던가를 알지 못한 者들의 公격이리라. 朱子는 그의 成長 過程에서 當代 高僧들의 禪學의 敎理哲學이 그의 學에 영향준 것은 있던 것이다. 朱子는 그의 師傅 劉屏山이 禪學을 좋아하여 朱子에 영향하였으며, 朱子는 이때 屏山先生의 집에 入出한 禪僧으로부터 많이 啓發되어, 그의 科學 試驗에까지 禪意로서 經을 說하여 試驗官을 感動케 하여 合格의 榮光을 얻었던 것이다.²⁶⁾

朱子는 有名한 大慧普覺禪師와 交遊한듯 하나는 學說이 나오고 있다.²⁷⁾ 그뿐 아니라 朱子는 其師 屏山으로부터 默照禪의인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大慧의 弟子인 高僧 開善道謙禪師와 交際하였다. 이로 因하여 禪學의 幽玄한 哲學의 理論에 啓發되어 宋學이란 思辨의인 性理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後世 李栗谷이 佛家에 出家하였다가 大儒가 된 것을 생각할 때, 牧隱의 이 佛家의 理解가 欠이 될 것은 全然없다고 하겠다. 더욱 近世 中國의 불메르라고 일컬어는, 北京大學 總長 章炳麟이 論其實際則孔是佛非요 論其眞理則佛是孔非라 하였거늘, 牧隱이 佛陀를 大聖이라 한 것은 편협한 儒者의 境地를 超越한 學問의 境地에 이른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其實은 佛教時代에서 儒敎時代에로의 移行에 있어서 過渡期的 人物이란 點을 염두에 둘 必要가 있다.

圃隱 鄭夢周는 東方理學之祖로 崇仰되는 儒學者로서 公의 性理學에 끼친 功은 偉大하다고 하겠다. 特히 圃隱은 朝鮮 革命期에 革命派에 依하여 打倒되어, 高麗를 爲하여 殉節한 精忠大節은 萬世에 崇仰됨이 足하였다. 這問에 是非曲折은 없는 바 아니나, 圃隱의 마지막 忠節은 실로 빛난 것이었다. 그는 麗末에 群起한 儒者中에서도 그의 學的

25) 李崇仁: 贈李生序(東文選卷 88, 陶隱集卷之四).

26) 朱子語類 卷104, 輔廣錄.

27) 友枝龍太郎: 朱子の思想形式, pp. 44~45.

偉業은 實로 卓越한 바 있다. 圃隱은 31歲에 禮曹正郎兼成均館博士가 되어 大司成 李穡 밑에서 程朱學을 講義한 一世의 名儒 가운데서도 그는 斷然 巨擘이었다. 牧隱은 포은을 極口讚揚하여

李穡亟稱之曰 夢周論理橫說堅說 無非當理 推爲東方理學之祖²⁸⁾

라고 激讚하여 牧隱같은 性理學의 巨匠이요 命世의 大儒도 圃隱을 東方理學之祖로 推擧하는데 인색치 않았으니, 公은 麗末의 가장 英邁한 儒者, 가장 傑出한 性理學者임에 틀림없었다. 뿐만 아니라,

時喪制素弛 士大夫皆百日即吉…時經書至東方者 唯朱子集註耳 夢周講說發越 超出人意 聞者頗疑 及得胡炳文四書通 無不脗合 諸儒尤加嘆服²⁹⁾

라 한 高麗史의 記事를 볼 때 公은 當代에 第一流가는 性理學者로서 他的 感服과 崇仰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胡炳文의 四書通에 通達하였으니, 얼마나 그가 性理學에 造詣가 깊었던가를 알만하다.

雲峯胡炳文의 『四書通』은 朱子가 撰述한 『四書章句』를 潛心研究하여 지은 冊으로 宋末의 雙峯饒魯가 朱子를 배웠으나 그의 『四書集註』가 朱子의 學說과 어긋남이 많아 이를 바로잡는 의도에서 이것을 지었던 것이다.³⁰⁾

宣祖時의 巨儒 芝山 曹好益은 圃隱의 四書通에 관한 造詣를 指摘하여,

竊嘗聞之 朱子四書集註行于東方 無有知其義者 獨先生剖析精微爲之訓解 及雲峯胡氏四書通 至所論皆合 時人始服生生之深於道學矣 夫雲峯深正饒氏之非 發明未盡之蘊 使吾朱夫子之說得大明于世 其精詣之極 獨見之妙 有非言語文字之所可至 而先生之見得 與之合則先生之所造可知 而欲求先生之道者 求之雲峯足矣 又嘗論雲峯之學得之私淑 又與定宇翁爲友 其淵源所漸遠 有端緒而 先生以渺然遐裔之人 上無授受之得 旁無講習之益 而獨能默契其妙 此則非雲峯之所可及者 佔傳齋獨推先生 以爲吾東方理學之祖者 其亦有見乎此歟³¹⁾

芝山은 위와 같이, 胡雲峯은 饒魯의 잘못을 바로잡고, 未盡했던 蘊奧를 發揮하여 朱子의 學說을 세상에 크게 밝혔으니, 그 精詣의 極과 獨見의 妙가 言語文字로써는 이를 수 없는 바가 있는 데도, 圃隱先生의 見解가 이와 같이 胡雲峯과 일치했다고 말하니, 포은 선생의 학문의 깊이를 가히 짐작할만하다. 만약 선생의 道를 알려면 그것을 胡雲峯에서 求하면足할 것이다. 胡雲峯의 學을 私淑으로 習得하였으며, 듣거나 배운 바 없거늘 홀로 연구하여 이 奧妙한 경지에 다달았으니, 이는 胡雲峯이 가

28) 高麗史 卷114, 列傳卷第30, 鄭夢周傳.

29) 上揭書.

30) 李滉: 理學通錄 卷10 元諸子篇.

31) 曹好益: 圃隱先生集重刊跋.

히 미치지 못할 바라고 하여 鄭圃隱이 胡炳文보다 훨씬 英邁함을 강조했다.

鄭道傳도

今稱達可曰 豪爽卓越 子虛則曰縝密精切³²⁾

이라 하고, 또 포은을 평하여

先生於大學之提綱 中庸之會極 得明道傳之旨 於論孟之精微 得操存涵養之要 體驗擴充之方 至於易 知先天後天 相爲體用 於書知精一執中 爲帝王傳授心法 詩則本於民彝物則之訓 春秋則辨其道誼功利之分 吾東方五百年臻斯理者 幾何人哉³³⁾

라고 極讚했다. 또한 그는 포은에 보낸 글에서

號爲大儒 而於學有不正 但當質諸本心 辨其邪正而已 豈以某公之故而遽以此爲是云爾 則爲有說矣 然此不惟獲以下觴上之罪 人反不信 以爲狂妄 譏笑毀謗 使無所容 辨者默然無言 彼爲佛者 意氣洋洋 自以爲吾說勝也 是知異端之邪 不可以口舌爭也 下民之惑 不可以義理曉也 惟其學術之正 德位之達 爲人所信服者 然後可以正矣 吾友達可其人也 達可雖無其位 達可之學 學者素服其正也 達可之德 學者素服其達也 以予昏庸不恤譏議 慨然有志於闢異端者 亦以達可爲之依歸也 天生達可 其斯道之福歟³⁴⁾

라 稱讚 欽慕하였다. 그는 鄭夢周야말로 하늘이 낸 우리 道의 福이라 하고, 그는 萬人的 師表로 舉世가 그를 推仰하여 마르고 있으며, 鄭三峯 自身도 排佛崇儒하게 된 動機가 敬慕주를 追從하여 배우고 따른 때문이라고 極讚하였다.

이를 볼 때 鄭圃隱이 얼마나 偉大한 學者인가를 알만하다. 그렇다고 麗末 儒者들이 萬丈의 氣餒을 뱉한 排佛崇儒의 旗幟 가운데 圃隱만이 破天荒의 偉功을 쌓은 純正한 性理學者였으며, 當世의 知佛思潮 속에서 圃隱만이 與世推移치 않은 屹然 砥柱였거나 하는 데는 충분한 疑問의 여지가 있다. 斥佛論者의 驍將인 鄭道傳은 鄭圃隱에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忠言 警告하고 있다.

近聞往來之言 達可看楞嚴 以佞佛者也 予曰不看楞嚴 曷知其說之邪 達可看楞嚴 欲得其病而藥之 非好其道而欲精之也 旣而私自語曰 吾保達可必不佞佛 然昌黎一與太顛言 後世遂以爲口實 達可爲人所信服 其所爲繫於斯道之廢興 不可不自重也 且下民昏愚 易惑難曉 達可幸思之³⁵⁾

그는 이와 같이 鄭圃隱이 楞嚴經을 읽고 佛에 현혹된다는 世論에 對하여 極口 圃隱을 변호하고 있다. 포은이 능엄경을 읽은 것은 佛教를 비판하기 위함이었으며, 병통을 찾아 邪道 異端을 치료하려 함이었다고 하면서, 鄭達可(夢周)는 萬人的 尊敬

32) 鄭道傳：李牧隱送子虛詩序卷後題(三峯集卷之四)。

33) 鄭道傳：圃隱奉使詩藁序(三峯集卷之三)。

34) 鄭道傳：上鄭達可書(三峯集 卷之三，東文選卷之 63)。

35) 上揭書。

하는 龜鑑으로서 達可의 一舉手一投足에 吾道의 興廢가 달렸으니 각별히 自重해 달라는 간절한 당부요 忠告였다. 이로써 볼 때 鄭夢周가 佛經을 讀誦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정몽주도 當代 一般知識人처럼 治世之道 理國之源으로는 儒敎를, 養生修身之本의 道로서는 佛敎를 好尚한 事實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鄭夢周만이 절두절미한 儒者로서 佛敎와는 絶緣性的 純儒였다는 說은 鄭圃隱을 追尊한 나머지 聖格化의 結果였다고 보겠다. 恭讓王 2년에 올린 金貂의 斥佛上疏로 國王이 震怒하여 死刑에 處하려고 할 때, 이를 容恕해 달라고 올린 鄭夢周의 上疏에

信者人君之大寶也 國保於民 民保於信 近日殿下 下教求言 曰言之者無罪 於是人皆抗疏 極論政事之得失 民生之休戚 眞所謂不諱之朝也 有國子博士生員等 亦以排斥異端 上書陳說 言語不謹觸犯天威 在朝之臣不勝恐懼 臣等以爲斥詆佛氏 儒者之常事 自古君王置而不論 況以殿下 寬大之量 蕞爾狂生 在所優容 乞霽寬恩 一皆原有 示信國人³⁶⁾

라는 글을 볼 때 國王의 震怒를 풀려는 뜻에서 意圖的으로 驅使한 言辭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斥佛論을 편 正義의 當然한 論理를 같은 排佛論의 儒者로서 蕞爾狂生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鄭夢周의 排佛觀을 알 수 있겠다. 斥佛派를 狂生이라 한 表現은 崇儒排佛論者의 文字에서는 絶無의 文字다. 이만큼 정몽주는 斥佛에 있어서 鄭重穩健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몽주의 斯文에 對한 그의 功績이 결코 減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다. 東國通鑑에서 徐居正은

金貂闢佛之疏 扶持吾道之正論³⁷⁾

이라 激讚한 것과 前記 鄭夢周의 태도와는 實로 天壤之差가 있다 하겠다.

鄭夢周의 存在가 정말 海東理學之祖로 추기할만큼 性理學의 宗師泰斗였던지는 일찍 李相伯博士가 지적한 것처럼 疑心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³⁸⁾ 東方 性理學의 最高峰인 栗谷은 圃隱을 評하여

問我朝學問始於何代歟 先生曰 前朝末始矣 而權近入學圖說似齟齬 鄭圃隱號爲理學之祖 而以余觀之 安社稷之臣 非儒者也³⁹⁾

라 하고, 또한

我東素稱文獻之邦 而由王氏以前所謂學問者 不過雕琢繡繪以爭工鬬麗而已 性理之談蔑蔑無聞 其季也有鄭圃隱始號理學之祖 而言論風旨 未得其詳 後人但知以一身撐柱五百年頽壞之綱

36) 高麗史 卷117, 列傳 第30, 鄭夢周傳.

37) 東國通鑑 卷第56, 恭讓王 三.

38) 李相伯: 朝鮮文化史研究論攷, p. 18.

39) 朴世采: 東儒師友錄 卷之二, 栗谷全書 卷 31 語錄上,

常而已⁴⁰⁾

라고 評하여 정몽주는 儒學者로는 볼 수 없고 一個의 忠臣일 따름이라고 했다.

當代 性理學者의 群星中에서 鄭夢周, 李崇仁, 朴尙衷, 朴宜中, 金九容, 鄭道傳, 權近, 尹紹宗 등의 巨星 中에서 鄭夢周만이 가장 英邁한 性理學者였다고는 볼 수 없다. 牧隱은 圃隱을 第一로 推舉한데 대하여 三峯은 李崇仁을 第一로 쳤던 것이다.

今牧隱李先生蚤承家庭之訓 北學中原 得師友淵源之正 窮性命道德之說 東選延引諸生 其見而興起者 烏川鄭公達可 京山李公子安 晉陽河公大臨 潘陽朴公誠夫 永嘉金公敬之 密陽朴公子虛 永嘉權公可遠 茂松尹公紹宗 雖以予之不肖亦獲賾於數君之列 予安氏精深明快度越諸子其聞先生之說 默識心通 不煩再請 至其所獨得 又超出人意表 博極群書 --覽輒記⁴¹⁾

라는 글을 볼 때 性理學派의 群星 가운데 가장 빛난 별은 李崇仁이었던 듯하다. 그는 諸子中에 卓越하다고 評했던 것이다. 陶隱 李崇仁이야말로 麗末에 群起한 性理學派의 群星 가운데 찬란하게 빛난 巨星이었다. 그의 文章은 公의 師傅 牧隱을 제치놓고는 그 누구도 追從을 斷然 不許했다. 뿐만 아니라 成均館에서의 性理學 講義도 卓越한 一世의 名講이었다. 그는 文章, 道德, 經術 등 여러 면에서 圃隱과 并稱되는 性理學界의 雙壁이었다. 官職에 있어서 圃隱이 더 높았는데 對하여 文章은 陶隱이 더 높았으며, 圃隱이 李成桂의 愛部下요 同志였는데 對하여, 陶隱은 牧隱 李穡의 愛弟子요 部下 同志였다. 그 外의 學問 道德에 있어선 兩者 難兄難弟로 頡頏했다. 그 때 문에 世에서 牧隱, 陶隱, 圃隱을 麗末 性理學界의 三台星인 三隱이라 稱하게 되었다. 陶隱 圃隱中에 누가 더 卓越한 性理學者였느냐 하는 問題는 判斷키 어렵다. 그만큼 兩者는 伯仲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무어니해도 麗末 第一의 儒宗은 圃隱, 陶隱, 三峰을 并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圃隱은 그의 人臣을 極한 宰相의 官位와 高邁한 人格學的한 外交政治의 手腕과 道學文章 더욱 偉大한 最後의 殉節 丹忠에서 圃隱의 性理非凡 比重은 一千무게를 더하여 빛났다고 보겠다.

그러나 太宗이란 朝鮮 儒敎王國의 英主와 卞季良이란 國初 官學의 長으로 長久한 年月에 걸쳐 文衡을 오로지 典하던 二大 主人公을, 門弟로 가진 陶隱은 崇儒仰佛의 性理學을 指導理念으로 擇한 王朝의 斯門에 寄與한 功은 與天地無窮하다. 麗末鮮初의 新進諸儒에 衣鉢傳授의 薰陶는 不朽한 것이다.

따라서 더욱 圃隱 陶隱 三峰 그리고 牧隱의 偉功의 優劣을 論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40) 李珣: 道峯書院記(靜庵集 附錄卷四, 栗谷全書卷十三).

41) 鄭道傳: 陶隱集序(三峰集 卷之三, 東文選 88卷).

Ⅲ. 排佛學派의 宗師 鄭道傳과 同派學의 猛將들

麗末에 板蕩의 國亂을 匡濟한 救國의 英雄 武將 李成桂장군과 武將의 軍事力과 結托한 新進 士大夫階層의 쿠데타로 禍王 昌王을 廢黜하여 斬하고 擁立한 傀儡恭讓王代에 들어오자, 朝鮮 革命派(李成桂派)의 全面的인 登場으로 因하여 崇儒斥佛운동은 일층 苛烈 擴散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高麗 王朝를 扶持한 指導理念의 退潮를 의미한다. 그리고 親元派에 對한 親明派 支配層이던 權門世家에 對한 士大夫 계급의 優位를 가져오는 世代 交替의 현상이었다. 이 一連의 革命운동의 一環인 排佛崇儒學派의 旗手요 第一의 猛將은 斷然 三峰 鄭道傳이었다. 三峰이야말로 眞可謂 海理學之祖宗의 稱을 들을 수 있는 唯一人이라고 論斷하여 過치 않을 것이다. 三峰은 牧隱의 門人으로 當代에 學文으로 鳴世한 名儒였다. 親友인 同志 鄭夢周 李崇仁和 莫逆의 交分을 가지고 風化之源인 文教의 本山 成均館에서 倡明正學한 一世의 名講들이었다. 그는 麗末의 崇儒斥佛派의 理論家로서 名著『心氣理篇』『佛氏雜辨』의 著述로서 理論적으로 佛教를 批判하여, 儒教立國에 貢獻한 第一人者였다. 그는 累次에 걸쳐 國學의 長인 成均館大司成을 歷任했을 뿐 아니라 公은 宛然히 斥佛學派의 宗師였다. 恭讓王의 好佛과 佛教의 甚大한 病弊는 李成桂派의 革命운동과 함께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恭讓王이 僧榮英을 맞아 王師로 任命함에 公양왕 2년 鄭夢周가 經筵에 幸御하신 國王께 進言했다.

儒者之道 皆日用平常之事 飲食男女 人所同也 至理存焉 堯舜之道 亦不外此 動靜語默之得其正 即是堯舜之道 初非甚高難行 彼佛氏之教則不然 辭親戚男女 獨坐巖穴 草衣木食 觀空寂滅爲宗 豈是平常之道⁴²⁾

勿論 國王은 鄭夢周의 이 매우 점잖은 말을 一笑에 부치고 말았다. 當時 鄭夢周는 李成桂 一派로 禍昌을 물리치고 恭讓王을 應립한 功으로 門下贊成事 同判都評議使司事 戶曹尚瑞司事 進賢館大提學 知經筵事 兼成均館大司成 領書雲觀事 封益陽郡忠義君 賜忠論道佐命功臣에 大拜되었다. 그의 權威로 強硬한 排佛論을 뒀던들 그 功効는 庶幾할 수 있었을 것이나, 매우 온건 正중하며 극히 常識的 消極的 形式的이었다. 따라서 恭讓王은 이를 듣지 않았다. 이에 大司憲 成石璘과 左常侍 尹紹宗이 強力한 排佛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王은 이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王은 演福寺를 重修하고 禮拜함에 다시 尹紹宗등의 反對운동이 일어났다.

恭讓王 3年부터는 天災地變이 잦아 國王은 이를 근심하여 忠諫을 冀求하게 되었다. 이때 李派의 執權은 더욱 公고화하여, 兵馬權을 三軍部摠制府를 장악한 李成桂 趙浚

42) 高麗史 卷 117, 列傳卷 第 30, 鄭夢周傳.

鄭道傳의 手에 集中시키니 거리낌없이 排佛論을 展開하였다. 이 때의 猛將第一은 鄭道傳이었다. 그는 論理整然한 排佛論을 國왕께 올렸다.

昔梁武帝屈萬乘之尊 三舍身爲寺家奴 殫江南之財力 大起佛塔 其心豈以爲非利而苟爲之也 匹夫作亂 身遭羈辱 子孫不保 而國家隨之 佛氏所謂修善得福者 果安在哉 此猶異代也 玄陵崇尚佛教 親執弟子之禮於髡禿之人 宮中之百高坐演福之文殊會 無歲無之 雲菴之金碧 輝映山谷 影殿之棟宇 聳于霄漢 財殫力竭 怨讟並興而皆不恤 事佛可謂至矣…休望殿下 申明有司 除祀典所載外 凡淫恠諂瀆之舉 一皆禁斷 則財用節而無所妄費也⁴³⁾

라고 三峰은 佛教가 國家 人民에 끼친 피해를 예리하게 지적하여 排佛論을 開陳했다. 이 鄭道傳과 軌를 같이 하는 斥佛論者들이 이때 犀利하게 排佛論을 들고 나와서 氣箴을 吐했으니, 그 重要한 몇 가지를 紹介하면, 郎舍 許應等은 上疏하여

上有好之者 下必有甚焉者 人君好惡 不可不慎也 殿下即位以來 中外未知殿下所好爲何事 及創演福旣廢之塔 臣民之望 多有所缺矣 釋氏之道 無父無君 戎裔之教 三代之盛 未所有也 殿下有志於三代之理 而反行裔夷之教乎 是役也 聖心或以謂不勞民力 而役遊手 不費國用而資捨施 然木石磚瓦銅鐵之費 累鉅萬 其遊手之食捨施之物 非吾民之恒產乎 民無恒產 則恐貽宵旰之憂也 願殿下罷可已之役 厚萬民之生 擇其所好 以副臣民之望⁴⁴⁾

라 排佛論을 올리고, 成均館大司成 金子粹는 上書하여

唐韓愈言於憲宗曰 自黃帝堯舜至于三代 皆享壽考 百姓安樂 當此之時 未有佛法 自漢永平始有佛法…殿下即位之始 修廣演福寺塔 彼民家三四十戶 今又大起浮屠 屢興土木之役 厥今農務方劇 而交州一道 斫木輸材 人畜盡悴 曾不少恤 欲以徼未可必得之冥福 以貽現在生靈之實禍 爲民父母 其可若是乎 乞申降明勅 以廢其役 以寬民力 或者以爲役遊手之髡徒 無害也 髡徒果枵腹而趨後乎 糜費國用 莫甚於此 歎怨于民 亦莫甚於此 殿下即位以來 其於大廟諸諫 未聞有修葺營繕之舉 而急於起塔 是報本追遠之誠 反不逮於求福利生之念矣 豈非足爲盛德之一欠乎⁴⁵⁾

라 하고, 吏曹判書 鄭摠은

浮屠之教 敗倫滅理 非人之所尚也 佛圖澄不能存趙 鳩摩羅什不能存秦 齊襄梁武未免禍殃 殷鑑昭然 可以爲戒 而殿下崇信太過 營構普濟之塔 而又多張梵采 殆無虛月 何爲此無益之費 以取識者之譏乎⁴⁶⁾

라고 國王의 教佛 崇信과 佛事를 비판했다. 成均博士 金紹는 과격한 毀佛上書에

釋氏潔身亂倫 逃入山林 此亦一道也 然其禍福之說 妖妄尤甚 其曰張皇梵采 能壓妖異 而降香絡繹 供億浩廣 未見天災地祲之消弭也 其曰我以祈福 能使人壽 而不惜萬錢 俾之祝壽 未見百齡之驗也 其曰賴我接引 破地獄生樂土 然死無復生者 其樂土與地獄者誰歟 其曰地鉗之應

43) 上揭書, 卷 119, 列傳卷第 32, 鄭道傳傳.

44) 高麗史 卷 46, 恭讓王世家二.

45) 高麗史 卷 120, 列傳第 33, 金子粹傳.

46) 高麗史 卷 46, 恭讓王世家二.

置金利寶塔以鎮之 然三代以上 未有釋氏 不知何物以鎮之 而致雍熙之治歟 且其法曰 禁而相生養之道 以求所謂清淨寂滅者 然其徒也 寄食吾民 無所愧耻 可笑之甚也 烏呼 爲此道者 辟穀居山 與禽獸同群 然後可也 來入民間 毀傷風俗 亦獨何哉 殿下中興 雖在先王之法 猶有所損益之者 而況此誤世之大恠 尤好而不黜之可乎 奈何造塔之役 農民勞憊 禪僧之養 錢穀虛耗 上所好者 下必有甚焉 恐斯民駸駸然入于釋氏 棄恒產而背君父矣 昔梁武三捨身於同泰寺 殫府庫以事浮屠 卒之淨居呵呵之聲 爲千古笑也 我玄陵師顛翁惑辛屯 深尚是教 終未獲福 此則殿下之所親見也…臣願回天聽決宸衷 驅出家之輩還歸本業 破五教兩宗 補充軍士 中外寺社 分屬所在官司 奴婢財用 亦皆屬焉…嚴立禁令 剃髮者殺無有 淫祀者殺無有⁴⁷⁾

라고 자못 격렬한 排佛論을 올렸다. 이 金紹의 辛辣한 上書는 드디어 國王의 逆麟에 抵觸하게 되었다. 國王은 震怒하여 그를 極刑에 處하려고 하였다. 이에 上記와 같은 鄭夢周의 救伸疏가 없었던들 그는 處刑되었을 것이다. 兵曹佐郎 鄭擢은 激烈한 上疏로

竊聞金紹排斥異端極言不諱 上以其破毀先王成典 將置極刑 臣竊爲殿下惜之 書曰監于先王 成憲其永無愆 所謂先王成憲者 不過三綱五常 而佛氏皆背之 非紹毀先王成典 乃殿下自毀之也 願收獄狂直之罪⁴⁸⁾

라고 金紹를 極刑에 處하려는 國王의 處事を 辛辣히 공격하고 激烈한 排佛論을 展開하여 金紹를 두둔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각격한 疏文은 代言等이 王怒를 두터워 감히 올리지 못했다 한다.⁴⁹⁾

恭讓王의 崇佛은 대단하여 內侍를 演福 洛山 王輪寺에 보내어 齋를 設하고 每四時에는 반드시 十三所에서 祈恩하는 道場 法席 別祈恩을 열고 王三年에 檜岩寺에 幸御하자, 佛寺를 배울 때는 豪奢를 極하고 飯僧 千餘人을 供養하고, 또한 世子가 손수 香爐를 잡고 東西僧堂을 돌며 食事を 勸하고 鄉樂과 唐樂을 奏樂케 하였다. 僧侶엔 布一千二百匹을 施主하고 講主僧에게는 段絹 各三匹과 衣 一襲을 下賜했으며, 大대의인 寺院重修 工事を 했었다. 그리고 左代言 李擔, 典醫副正 全瑛, 前戶曹判書 鄭士倜 등은 佛法을 응호하고 이들 排佛派를 非難하였다. 佛教의 墮落은 佛教 教理의 眞理와는 別個의 것이니, 佛法은 振興해야만 하며 斥佛論者들을 破寺 斥僧을 외치는 狂儒의 淺見薄識이라 罵倒했다. 그중 金瑛의 上書를 볼 것 같으면

太祖創業 觀山水之逆順 察地脈之續斷 創寺造佛 給民與田 祈福禳災 此三韓基業之根本也 比來無識僧徒 不顧創業之義 收民土之產 自營其業 而上不供佛 下不養僧 嗚呼其徒之自滅其法也甚矣 今狂儒之淺見薄識者 不顧三韓之大體 徒以破寺斥僧爲懷 噫聖祖創業之深智 反不如豎儒之計乎 伏望殿下 上順聖祖之弘願 重營佛寺 加給田丁 以興釋教⁵⁰⁾

라고 護佛을 主張하고 排佛崇儒派를 辛辣하게 痛駁했다. 國王이 이를 嘉納하고 이들

47) 高麗史節要 卷 35, 恭讓王 3年 5月條.

48) 高麗史 卷 17, 列傳卷 第 30, 鄭夢周傳, 高麗史節要卷 35 恭讓王 3年 7月條.

49) 高麗史 卷 117, 列傳第 30, 鄭夢周傳, 高麗史節要卷 35 恭讓王 3年 7月條.

50) 高麗史 卷 46, 恭讓王世家二.

에 同調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시 佛事는 盛行하게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斥佛의 驍將 鄭三峯 麾下 그가 學長으로 있던 文教의 根源地 成均館儒生들이 中心이 된 격렬한 排佛崇儒운동이 澎湃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成均館 生員朴礎등은 長文의 과격한 상소문을 올렸다. 이를 一瞥하던 그 句節에

臣等竊聞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措 此天下之達道 古今之經常 不可須臾離也 苟或廢焉者 則覆載所不容 日月所不照 鬼神所共殛 天下萬世公論之所共誅也 彼佛何人也 以世嫡而叛其父 絕父子之親 以匹夫抗天子 誠君臣之義 以男女居室爲非道 以男耕女織爲不義 絕生生之道 塞衣食之源 欲以其道 思以易天下 信如此焉則百年之後 人類絕矣 天行乎上 地載乎下 其所以生育於其間者 惟草木禽獸魚鼈龍蛇而止爾 三綱五常之道 竟何寓其於間哉 夫佛本夷狄之人 與中國言語不類 口不言先王之法言 身不服先王之法服 不知夫婦父子君臣之倫…一 夫不耕或受之飢 一婦不蠶或受之寒 彼佛之徒不耕而飲食充 不蠶而衣裳具 安居自養者 不知幾千百萬 由是而凍餓者不 知幾何人矣 彼雖飲風吸露巢居野處 爲國家者 所當斥之者也 況坐華屋食精饌 遊手而揖君親者 其可一日容於天地之間乎 誠不供載天者也…伏惟殿下 法堯舜三代之所以興 鑑齊陳梁蕭之所以亡 上繼聖祖之遺意 下副吾儒之素望 使彼佛者 勒遷其鄉 人其人 以充兵賦 廬其居 以增戶口 焚其書 以永絕其根本…若遵董韓程朱之學 以正人心明人倫 去民之蠹賊 以興堯舜三代之理 以光中興 與天無疆之業 則彼金瑬者 當輟諸都市 以示三韓萬世中興大聖人之不惑於邪說可也…衆大成鄭道傳 發揮天人性命之淵源 倡鳴孔孟程朱之道學 闢浮屠萬代之誑誘 開三韓千古之迷惑 斥異端息邪說 明天理而正人心 吾東方眞儒一人而已 是上天授殿下以皋陶伊尹傅之佐 以興堯舜三代之盛於中興之日也 殿下以道傳闢佛之策 爲祖宗之罪人歟 金瑬奉佛之說 爲殿下之忠臣歟 臣等未敢知也 殿下疑道傳之正學 信金瑬之邪說 則豈不取笑於天下 見議於萬世哉⁵¹⁾

라는 激烈한 排佛崇儒論을 開陳하고 辛辣한 비판을 加하고 排佛崇儒派의 領袖 鄭道傳을 吾東方眞儒一人이라 激讚하여 자기네 國學 師長이요 斥佛의 宗師首領인 鄭道傳을 推仰하고 있다. 그리고 排佛論者들은 國王까지 痛罵하고 있다.

이로써 過激한 斥佛論과 舊支配層의 打倒를 主張하여, 舊세력과의 對決에서 孤立無援에 빠져 劣勢에 놓인 斥佛論의 旗手 鄭道傳에 三軍의 聲援을 한 셈이다. 이와 같이 大膽 과격한 言論이 可能的 것도 革命派 세력 増大의 結果였다. 그리고 그들 斥佛崇儒派의 新進士類層에 얼마나 鄭道傳이 존경받고 있는가를 가히 알만하다. 三峰은 實로 儒者들의 偶像이었다.

朴礎等의 強硬論의 上疏에 찬동한 과격파는 尹尙, 韓皋, 許遲, 金縷, 李子撰 등 十五名이었다. 이 때 이 과격한 上疏文을 탄류하는 穩建한 儒者도 柳伯淳등은 知申事 成石啓와 협조하여 太學生들의 上疏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大學生生들은 스트라이크를 斷行하였다. 大司成(學長) 金子粹는 辭職表를 내며 이들의 과격한 태도에 반발했다. 上疏文에 署名을 拒否한 徐復禮를 急進斥佛派인 金貂, 金租, 鄭包,

51) 上揭書, 卷 120 列傳第 32 金子粹傳,

麗末 性理學派의 形成

黃喜 등의 太學教授들이 除名處分에 處했다(鳴鼓하여 罷黜시켰다). 이 事件은 學長인 大司成 金子粹의 激怒를 샀다. 學長에 稟議없이 不法으로 退學 시켰다고 關係者를 投獄處罰하고 徐復禮를 職權으로 復學을 命했다. 이와 같은 强硬斥佛論者들은 少壯派였고 老成派는 穩健했으며, 이들 과격파의 首領이 三峰임은 再言을 不要한다.

鄭道鄭은 當代 排佛崇儒學派의 首領으로 그의 學文經綸은 當世에 卓邁하여 斷然革命의 元勳功臣이었다. 李穡은 그를 評하여

三峰道者鄭宗之 立志甚高 其於學也 講明則同陶隱 著述則同陶隱 微言之析 古調之廢 一時巨擘皆縮手袖間 而不敢爭⁵²⁾

이라 評한 麗末鮮初의 第一가는 性理學의 宗師였다. 그는 『心氣理篇』 『佛氏雜辨』을 지어 理論의으로 斥佛한 千古一人者요 『經濟文鑑』 『經國典』의 名著를 남겨 崇儒 文治에 偉대한 공헌을 하였다. 後世 朝鮮 諸儒의 斥佛은 모두 이 三峰의 『佛氏雜辨』에 淵藪했다.

그의 『佛氏雜辨』은 佛氏輪廻之辨 佛氏因果之辨 佛氏心性之辨 佛氏作用性性之辨 佛氏心跡之辨 佛氏昧於道器之辨 氏毀棄人倫之辨 佛氏慈悲之辨 佛氏眞假之辨 佛氏地獄之辨・佛氏禍福之辨 佛氏乞食之辨 佛氏禪教之辨 佛釋同異之辨 佛法入中國 事佛得福 舍天道而談佛果 事佛甚謹年代尤促 關異端等 十九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心氣理篇』은 心難氣 氣難心 理論心氣 心問天答의 四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兩大書에서 性理學者로서의 識見과 斥佛論者의 理論을 볼 수 있다. 그는 斥佛論을 朱子大全 語類等에서 따왔으나 一步前進한 整然한 理論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先秦儒家思想에 基礎한 民本思想⁵³⁾은 朝鮮革命의 理論的 根據가 되었다.

麗末鮮初 性理學者로는 三峰과 雙璧을 이루는 巨匠에 陽村 權近이 있다. 陽村은 三峰과 같이 牧隱의 門下生들이었으며 三峰의 後輩였다. 그는 名著 『入學圖說』 『五經淺見錄』을 撰述한 性理學者로 性理學을 體系的으로 理解한 當代의 鴻儒로 性理學界에 貢獻했다. 이들 三峰 陽村 두 性理學의 旗手 宗師에 依하여 闡明한 性理學과 그들이 養成한 門徒에 의하여 麗末鮮初의 性理學派는 찬란하게 형성되어졌다.

牧隱, 圃隱, 陶隱에 의하여 전명되고 啓發된 성리학파 그들이 養成한 性理學者群은 三峰, 陽村이 領導하여 이후 朝鮮의 官學과 士林學의 二大學派의 主流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麗末 性理學派의 形成에 하나 看過해서 안 될 貢獻은 恭愍王의 親明 排元과 振興 文教의 恩功을 잊을 수 없으며, 공민왕 19년에 明太祖가 보낸 글에 佛教보다 儒敎로 王化할 것을 勸한 文字는 親明事大 儒者들인 鄭夢周, 李崇仁, 鄭道傳 등의 儒敎에 영향증이 컸을⁵⁴⁾ 것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52) 李穡：鄭宗之詩文錄跋(三峰集卷之八).

53) 韓永愚：鄭道傳思想研究 p.80(韓國文化研究所).

54) 李相佰：前揭書, p.13.

Ⅲ. 三 隱 攷

麗末 性理學派의 人脈中에서 가장 傑出한 驍將을 三隱이라 하여 當代와 後世累百年間을 欽仰되어 왔다. 그러나 이 三隱에 누구를 꼽아야 하는 문제로 상당한 論難이 계속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從來學界에서 三隱을 牧隱 李穡, 圃隱 鄭夢周, 治隱 吉再를 꼽는 것이 一般의인 傾向이었으나, 1954年 李丙燾博士가 그의名著『國史大觀』에서

性理學의 輸入은 뒤를 잇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學問은 國內에 盛行하게 되고 따라서 그후 麗末의 三隱 즉 牧隱 李穡 陶隱 李崇仁 圃隱 鄭夢周와 같은 理學의 泰斗를 내었던 것이다. 在來에는 三隱이라 하여 其中에 陶隱(李崇仁)을 除外하고 治隱吉再를 넣어 꼽는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실상 麗末에 있어 牧隱 圃隱과 더불어 經術教育에는 勿論 文章 其他 修史事業에까지 寄與貢獻이 많은 이는 陶隱이었다. 牧隱 陶隱 圃隱이야말로 당시 學界를 代表하던 三高峰이었다. 그럼으로 나는 特히 三人을 指稱하여 麗末 三隱이라고 規定하는 바이다. 治隱은 李氏朝鮮에 들어 不事二君의 主義로써 新朝에 버슬하지 않고 在野하여 後輩教育에 從事하여 私學의 大淵源을 열은 까닭에 本朝에 들어 그 存在가 비로소 커졌고 그 以前에는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다.⁵⁵⁾

라는 學的 所信에서 그의 見解를 披瀝하고, 麗末 三隱에 治隱 吉再 代身에 陶隱 李崇仁을 넣음으로써 國內 學界에 一大 波瀾이 惹起되었다. 嶺南 儒林에서는 文教部 當局에 是非를 가려달라는 陳情書를 보내고, 新聞紙上에서는 「史學界에 던진 波紋」이라는 題目下에 大書特筆로 報導되었다. 이에 對하여 學論者인 李丙燾博士는 『서울신문』에 『麗末의 三隱問題』라는 論說文을 실어 自身の 學的 所信을 開陳했다.⁵⁶⁾ 以來 三隱 문제는 未解決의 爭點이 되어 왔다. 이로 因하여 三隱은 牧隱, 圃隱, 陶隱으로 定立되어간 듯한 경향을 보이니, 그와 比例하여 治隱을 넣어야 된다는 反擊의 說도 無視할 수 없을 만큼 澎湃하다는 것이 昨今の 學界動向이다. 이러한 傾向을 代表하는 것의 하나가 徐首生 博士의 『善州儒學思想研究』다. 徐博士는 治隱을 三隱으로 主張하여

三隱은 圃隱 牧隱 治隱으로 보는 說과 牧隱 圃隱 陶隱으로 보는 兩說이 있다. 前者는 公州 三隱閣에서 圃牧治를 享祀한데서 나온 것이다. 李太祖 3年(A.D. 1399)에 治隱이 圃隱을 제사지내고, 定宗 元年(A.D. 1400)에 柳方澤이 牧隱을 追配하고, 다음해 定宗 2年(A.D. 1400)에 李孝靖이 三隱閣을 세우고 治隱을 追配함으로써 三隱이 된 것이다. 이 三隱閣은 李朝以後 全國 儒林에 알려져 三隱이라던 모두 圃 牧 治로 칭송되어 왔다. 그리고 京畿道誌 坡州邑誌인 다 花石亭을 이야기하고 그 곳은 三隱中의 一人인 治隱의 遺趾라고 말하였고, 三隱閣重建上樑文엔 文節公治隱先生 行淑志潔玉雪水霜節高操堅兮 松柏金石 이라하였다. 그래서 圃 牧 治隱을 三隱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⁵⁷⁾

55) 李丙燾：國史大觀，p. 272.

56) 서울신문 1954. 4. 3.

李丙燾：斗溪雜筆，4289年 一朝閣 216~219面.

57) 徐首生：善州儒學思想研究，p. 22.

고 했다. 圃隱을 海東 道學之祖로 받들고, 治隱과 佔俾齋 金宗直의 淵源을 이었다고 自負하는 嶺南의 儒林에서는 治隱을 三隱으로 받드는 것은 하나의 宗教와 같은 神聖不可侵의 定論이었다. 그리고 嶺南에서 畿湖學派의 後裔라 指目되고 있는 李丙癸博士에 의한 治隱 代身에 陶隱을 치는 것은 嶺南學派에 對立되는 畿湖學派의 說인 것으로 받아들여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陶隱 李崇仁은 畿湖人으로 誤認대접되어 왔다. 慶北 善山 金烏山下 金烏書院 採薇亭의 吉再(治隱)는 一般에 널리 알려졌는데 反하여 李崇仁(陶隱)은 極히 一部の 識者계급 外에는 생소한데 起因한다. 陶隱 李崇仁이야말로 本貫이 星州요 星州(京山)의 累代 名門世族으로 出生도 星州였다는 事實을 생각하면, 李博士의 說에 畿湖學派인양 말곤하는 嶺南人들의 感情은 失笑를 不禁케 하는 느낌이다.

麗末의 三隱은 道學 節義 文章에 있어 百世의 師表가 됨으로써 麗末의 大性理學者요 忠臣에 보낸 民族의 最高 讚詞였다. 그러기 때문에 이 三隱 문제는 여기에 드는 一個人의 榮譽를 超越하여 莫重한 史的 意義가 內包되어 있다고 하겠다.

元나라로부터 輸入된 性理學은 恭愍王이 成均館을 再建하여 文教를 復興시킨 麗末 文藝復興期에 成均館 大司成 牧隱 李穡을 위시하여 司成 陶隱 李崇仁, 圃隱 鄭夢周 등 綺羅星과 같은 性理學의 巨匠들에 의하여 宋學(性理學)을 講義하고, 이로써 教育의 根本을 삼으므로써 倡明正學 文教振興하야 麗末 儒學의 盛觀을 나타내어 이에 비로소 性理學이 學界에 興起 普及되고 土着하게 되는 史的 契機를 이루었다.

當代 文運의 首功은 무어니해도 牧隱, 陶隱, 圃隱 즉 三隱임은 贅言을 不要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高麗史 恭愍王世家와 高麗史列傳 李穡傳, 李崇仁傳, 鄭夢周傳에 昭詳히 記載되어 있다.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一世의 鴻儒碩學 陶隱의 事實은 大書特筆되어 있지만 治隱에 關하여는 一言半句의 言及이 없다. 高麗史 列傳에 李崇仁은 長文의 傳記가 실려 있으나 治隱傳은 全無하다. 여기 麗末 性理學界에 찬란히 빛난 群星中에 治隱의 存在는 그림자도 없다는 史實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治隱은 1386年(禡王 12年)에 文科에 及第하여 익년에 正九品 成均館學正이란 微官末職에 出仕하여 익년에 成均館博士(從七品)에 올라 講義를 담당하나, 恭愍王 16年(1367年)에 成均館을 復興하여 大司成 牧隱과 함께 學官으로서 義講하던 巨星들인 成均博士 陶隱李崇仁에 뒤지기 二十個星霜이 經한 뒤요, 禡王 3年에 成均館司成 全 10年에 藝文館提學(正三品)에 오르고, 뒤에 知密直司事同知春秋館事(從二品)에 오른 巨儒 陶隱의 學德官職의 比重에 比할 때 實로 雲泥의 差가 있다 하겠다. 治隱은 1389年 昌王元年에 門下注書(從七品)로 官職을 마친다.

文章에 있어서 經術에 있어서 陶隱은 斷然 超邁하여 麗末의 治隱에 比較가 되지 않는다.

陶隱은 當世에 翺翔하던 文苑 諸子 中에서도 可謂 首位를 占하던 文豪였다. 그는

麗末의 文豪인 牧隱 李穡과 雙璧을 이루던 鬼才였다. 權近은 陶隱을 極讚하여

惟我國家臣事大明以來 表箋詞命多出崇仁之手 恭愍得諡 上王襲爵 皆崇仁文章之力也 得免
歲貢金銀馬布 亦崇仁之力也 皇帝屢稱文章之美 謂我國有人物者 亦是崇仁之功也 崇仁文章簡
潔高古 問世挺生中國罕有 國家詞命 不可不可 不使此人掌之也⁵⁸⁾

라 하고 그의 恩師 文豪 牧隱은 그를 激讚하였으니, 高麗史에 依하던

崇仁天資英銳 文辭典雅 穡每歎賞曰 此子文章 求之中國 世不多得 高皇帝嘗覽崇仁所撰表
嘉之曰 表辭誠切 中原士大夫 觀其著述 亦莫不歎服⁵⁹⁾

라 하였다. 그의 文章은 中國과의 外交에 文章報國의 偉대한 功獻을 하였으며, 明太
祖는 그의 文章에 感動하였으며 그의 文名은 中原에 떨쳤던 것이다. 李朝 中期의 文
豪 崔岔는 陶隱을 讚美하여

牧隱之文 陶隱之詩 吾東第一家數也⁶⁰⁾

라 하였으며, 河崙은

他日中國有採詩之舉 則此篇當與牧隱陶隱二先生之集並傳於中國 而使中國之士 知海東有邦
文學之盛矣 顧不偉哉⁶¹⁾

라고 極讚을 아끼지 않았고, 巨儒 陽近은

韓山牧隱相國名以風咏 仍爲作記解 元星山陶隱留之以詩 二公皆一世之文章大手也 此州聲
價實增其重⁶²⁾

라고 極口讚揚하였다. 朝鮮王朝實錄에 依하던

崇仁聰明絕人 讀書輒成誦 年未冠詩文已爲時輩所推 傳極群書 尤精於性理之學 自直講至
判書皆兼製敎 李穡病後 事大文字全出其手 高皇帝稱之曰 表辭精切 李穡嘗曰吾東方文章前輩
無如子安者⁶³⁾

라고 激讚했다.

實로 陶隱 文章은 百代의 巨匠으로 名振天下하여 中原과 槿域에 共히 聳動했다.
正히 麗末의 文豪로 牧隱과 并稱되는 雙璧이라 하겠다.

그리고 陶隱은 牧隱 圃隱과 함께 實錄을 編纂하는 修史官이 되어 人臣의 榮譽인

58) 權近: 論敕疏(高麗史 卷 115, 列傳第 28 李崇仁傳).

59) 高麗史 卷 115 列傳卷 第 28 李崇仁傳.

60) 崔岔: 新印陶隱詩集跋.

61) 河崙: 圃隱集序.

62) 權近: 尚州風咏樓記(陽村集卷之十四).

63) 朝鮮王朝實錄 太祖卷一元年壬申八月條.

修史事業에 參與 貢獻했다. 古來로 史官은 才 學 識三長의 才를 兼備해야 된다고 했다. 이 三長之才를 갖춘 者が 世에 드므니 歷史家가 어렵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陶隱은 三長之才를 갖추어 가졌다 하겠다. 그는 經術文章太史를 兼한 巨匠으로 麗末에 여러모로 牧隱 圃隱과 함께 술받치덤 鼎立한 三巨擘이었다. 三隱을 論함에 麗末에 聞名조차 없는 冶隱과는 도저히 同日에 論할 수는 없는 것이다.

李丙燾博士는 三隱에 陶隱을 넣는 理由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麗末에 있어 陶隱이 文章經術로서 牧隱 圃隱과 함께 이름을 떨치고 또 함께 당시 太學成均館에서 經學을 講하여 大盛況을 이루고 또같이 修史事業에도 參與하였던 만큼 이 三隱이야말로 당시 麗末 學界의 重鎮이요 巨擘이었던 까닭에 그러한 것이다. 以上과 같은 理由에서 나는 麗末三隱이라하여 在來의 이른바 三隱과는 조금 달리한 것이다.⁶⁴⁾

고 했다. 이는 學界에서 大體로 妥當한 論理로 받아드렸다.

그러나 陶隱이 三隱으로 一般에 알려지기는 文一平의 史論에서 濫觴된다.

李益齋門弟에 李牧隱이 있으니 이 益齋와 牧隱은 麗末의 暗黑時代를 비쳐준 二大文星이다. 世間에서 文章을 말하는 이 或은 益齋牧隱을 並稱하여 二李라고 하며 또 牧隱圃隱陶隱을 並稱하여 三隱이라고도 한다.⁶⁵⁾

라는 이 글에서 비로소 우리 近世學界와 一般에 三隱이란 文字가 喧傳되게 되었다. 그리고 文一平이 推舉한 三隱은 牧隱, 圃隱, 陶隱이었다.

三隱을 牧隱, 圃隱, 陶隱으로 치는 것은 벌써 麗末鮮初부터였다. 陶隱 生存時 當代이미 三隱이란 推稱事實이 있었다. 李穡이 撰한 圃隱齋記에

今達可 隱於圃 而立於朝 以斯道自任 抗顏爲學者師 非其眞隱也明矣 將與牧者陶者而伯仲乎.⁶⁶⁾

라고 써 隱字 號를 稱한 牧·陶·圃 三子の 伯仲한 學者를 自矜하였다.

高麗末에는 世上이 紛紛하여 몸은 朝廷에 서서 宦海 風波에 말렸어도 뜻은 草野에 隱遯에 두어 恒常隱逸을 憧憬하고 指向하여 仕宦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러므로써 號로 隱字를 부치는 風이 天下를 風靡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時代의 潮流를 李穡은 陶隱齋記에서

古之人隱於朝者 詩之伶官 漢之滑稽是已 隱於市者 燕之屠狗 蜀之賣卜者是已 晉之時隱於酒者竹林也 宋之季隱於漁者荅溪也 其他以隱自署其名者 唐之李氏羅氏是已 三韓儒雅 古稱多士 高風絕響 代不乏人 鮮有以隱自號者 出而仕其志也 是以羞稱之耶 隱而居其常也 是以不自表耶 何其無聞之若是耶 近世難林崔拙翁自號曰農隱 星山李侍中自號曰樵隱 潭陽田政堂自號

64) 李丙燾: 麗末三隱問題, 『斗溪雜筆』 pp. 216—219.

65) 文一平: 麗末巨擘李牧隱, 湖岩全集第卷二 文化 風俗篇, p. 143, 一成堂 1948年.

66) 李穡: 圃隱齋記(東文選 卷 74, 牧隱文叢卷之五).

曰野隱 予則隱於牧 今又得侍中族子子安氏焉 蓋陶乎隱者也⁶⁷⁾

라고 말하고 있다. 이 記文에서 볼 때 隱字 雅號로 農隱 崔滋, 樵隱 李仁復, 野隱 田生祿이 있으며, 當代에 有名한 者로 築隱 宋文貴, 治隱 吉再, 思隱 文益漸, 漁隱 康東亭, 綺隱 鄭以吾, 耕隱 田祖生, 晚隱 洪載 등이 그중에서도 著名한 人士들이다. 이와같이 郊羅星처럼 빛난 諸隱諸子 中에서도 當世에 가장 巨匠은 三隱으로 稱하는 文豪碩學이 있었으니 河崙이 撰한 글에

陶隱遯牧隱圃隱兩先生及通村 設小酌盆梅于前 作梅花聯句 予亦往參席末 聞其驚句… 至今每念相從之樂 恍然如夢中事… 三隱詩文皆行于世 而通村獨無之⁶⁸⁾

라고 三隱이란 文字가 있다. 이는 벌써 當代에 三隱이란 稱號를 쓴 事例가 될 것이다.

通村集에

世謂先生通村一章 與三隱圃陶牧相友善而爲所推重在今文獻足徵 不有德其能友於君子不以道其能敬於君子乎⁶⁹⁾

라는 記事가 있고, 그리고 또한 通村集과 陶隱集에

當世斯文之學有三隱 牧隱 陶隱 圃隱 五村 通村 桑村 杏村 陽村 漁村 八清 通村 石灘 惕若齋 貞齋 莖堂 德谷 龜岩 ○○ 九逸 通村 李石灘養中 徐衿川甄 吉治隱再 元松谷天錫 崔晚六養 李大隱裕 閔友菴愾 李處士藍 之盛爲一國所敬重於道義也

라는 記事가 있다. 麗末의 儒賢中에서 三隱 五村 八清 九逸로 稱하는 一群의 榮譽로운 儒賢 忠節臣의 이름이 後世 斯文에서 불려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中에서도 가장 榮譽로운 것은 三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三隱은 牧隱, 圃隱, 陶隱을 의미했음은 말할나위도 없다. 世에 經術 文章 道德이던 三隱을 并稱했던 것이다. 그리고 通村集에

士林以先生文學志節 可並三隱 而久闕祀典 士林之耻 遂僉議逮祀俎豆之 願廟己酉立院 肅廟丁丑賜額 院在廣州北岸 地名巖寺⁷⁰⁾

라는 史料에서 三隱을 일찍부터 李牧隱, 鄭圃隱, 李陶隱 三巨儒 文豪에 붙인 稱號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學問高邁 一時交遊李穡鄭夢周李崇仁輩皆收重焉號通村有詩集⁷¹⁾

67) 李穡: 陶隱齋記, 上揭書.

68) 河崙: 通村先生雜詩序(東文選 卷之 93).

69) 李必行撰: 師友淵源錄(通村集).

70) 通村集, 龜岩書院條.

71)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六 廣州牧 人物條 李集.

이라고 三隱先生을 나란히 通例의 順序에 따라 並列 並稱하고 있으며, 慵齋叢話에

金好生者本儒者也 少時居京 善造筆……好 生稍解占聯 文士多有厚之子 好生問齋名於文士
文士曰牧隱⁷²⁾圃隱⁷³⁾陶隱⁷⁴⁾皆以所好號之 今汝以造筆名於世 可號曰毫隱 好生樂而從之 常自號
曰毫隱⁷²⁾

라고 三隱을 나란히 並書하고 있다. 그리고 正祖時傳旨에

東俗金金自箕師以後 得聞彝倫之叙 及至鄭文忠諸賢 乃能倡明之 皆以隱爲號號稱九隱⁷³⁾ 卽圃
牧⁷⁴⁾陶⁷⁵⁾治 是已外七十有二人 同入山谷 名曰杜門 前後磊落相望至于今耀人耳目⁷³⁾

이라는 글에서 九隱을 圃牧陶治의 順으로 記錄하여 단연 三隱은 圃 牧 陶가 됨을 示
唆해주고 있다. 遁村集에

當時號名人而與之酬唱者 何限獨牧隱⁷⁴⁾圃隱⁷⁵⁾陶隱⁷⁶⁾楊若齋四先生 其道義相磨之功 志節交孚之密 雖
金利蘭臭猶未足以喻其至 至今我東國人人靡不聞言⁷⁴⁾

라고 三隱을 나란히 並書하고 中國의 文士들도 三先生을 並稱했으니

東方之國久被聲教 而文學才藝之士 後望其見乎 篇章簡什者 論事析理屬詞之 往往取法作者
有華夏之遺風 若牧隱⁷⁴⁾李氏⁷⁵⁾圃隱⁷⁶⁾鄭氏⁷⁷⁾ 陶隱⁷⁸⁾李氏⁷⁹⁾ 皆其巨擘⁷⁵⁾

라는 諸記錄을 檢按할 때, 三隱이라는 文字가 非一非再하고, 또 이 三隱先生으로 牧
隱 李穡, 圃隱 鄭夢周, 陶隱 李崇仁을 이와 같은 序列에 依하여 推舉하는 世論이 廣
範히 儒林과 學界에 定立되어 있었던 事實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益⁸⁰⁾牧⁸¹⁾圃⁸²⁾陶⁸³⁾爛若晨星伯仲 填⁸⁴⁾毫⁸⁵⁾鑑⁸⁶⁾和⁸⁷⁾鳴⁸⁸⁾

란 글과

同時⁸⁹⁾圃⁹⁰⁾牧⁹¹⁾陶隱⁹²⁾諸先生與之 聯武於臺閣 方駕於翰苑 其講磨唱酬之盛 槩可知矣⁷⁷⁾

란 記事와

72) 成倪：慵齋叢話卷之四。

73) 正廟戊午 忠介公 金濟贈諡傳旨。

74) 十一代孫 李厚源撰：遁村雜咏重刊跋(遁村集)。

75) 高巽志：陶隱集跋(陶隱集)。

76) 潭陽田氏文獻錄。

77) 柳滄：先山卓氏世稿跋。

按陶隱與李牧隱鄭圃隱李通村三賢並生麗李 以道義文章鳴一世 其相得相與之厚就諸賢文集而可知也⁷⁸⁾

란 記事와

洪晩隱諫致仕南歸之日 朝廷故舊來別于松京東門外 東京廉興邦・訥村襄仲孚・陶隱李崇仁・圃隱鄭夢周・楊若齋金九容・牧隱李穡・賜成堂權近・耕隱田祖生・圃齋鄭樞諸公 皆有別章⁷⁹⁾

라는 글과

予少也遊於牧隱先生之門 坐客有若圃隱鄭先生楊若齋金先生陶隱李先生者 視其容儀 聽其談論 知其爲一代之偉人也 自是心竊景慕焉⁸⁰⁾

라고 한 글과, 또한

他日中國有採詩之舉則 此篇(圃隱·筆者註)當與牧隱陶隱二先生之集 並傳於中國 而使國之士知東有邦文學之盛矣 願不偉哉⁸¹⁾

라고 한바와 같이 河崙 相公이 牧隱, 圃隱, 陶隱을 三大文章으로 並稱推舉한 事實과 亦 同人의

厥後十餘年間 圃隱陶隱相繼淪沒 而牧隱先生亦乘化矣⁸²⁾

라고 한 記事와

既就學與圃隱鄭公陶隱李公及正言李順卿義愛尤篤…相韓山李公主盟師席⁸³⁾

이라는 諸記錄을 勘案할 때 牧隱, 圃隱, 陶隱 三隱先生을 恒常 並記하고 있어 注目된다. 여기 이들 諸記事에 到底히 冶隱 吉再가 比肩하여 同格으로 參與할 수는 없다. 三隱은 陶隱을 除外하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世에는 三隱에 陶隱이 아닌 冶隱을 치는 學說도 만만치는 않다.

冶隱 吉再를 三隱으로 치는 說은 公州 東鶴寺 境內의 三隱閣에 연유한다. 三隱閣碑文에 의하면 朝鮮 太祖 2年 甲戌(1394年)에 冶隱 吉再가 東鶴寺 境內에 들어와서 一

78) 李元禎: 京山誌本傳後叙(京山誌卷之 4).

79) 耕隱實記.

80) 河崙: 楊若齋學吟集序(浩亭集).

81) 河崙: 圃隱先生詩藁序(圃隱集).

82) 河崙: 遁村先生雜詩序.

83) 鄭道傳: 若齋遺藁序 東文選卷之 89.

壇은 設하여 高麗國王과 圃隱 鄭夢周의 魂을 招魂하여 祭享하였던 것을, 定宗元年 己卯(1399年)에 靖肅公 琴軒 柳方澤이 이곳에 들어와서 高麗國王과 牧隱, 冶隱을 追配하여 三先生을 祭享하였다. 이 때까지만 해도 祭壇을 設置한대 不過하였으나, 翌年 定宗 2年 己卯(1340年)에 孝靖公 李貞幹이 公州의 知州事로 到任하여 왔을 때, 그 祭壇에 三隱閣을 敍建하여 三隱公을 祭享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이 事實은 全國 儒林에 알려져 三隱이란 稱號가 생기고, 또 三隱은 牧隱 圃隱 冶隱은 일컬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⁸⁴⁾ 과연 이와 같이 三隱閣이 定宗元年에 창건되어 그 以後 儒林에서 祭享해 왔다면, 三隱은 가장 有力한 뒷받침이 된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三隱閣의 창건 年代에 對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定宗元年에 三隱을 祭享하고 익년 定宗 2年에 三隱閣을 창건했다는 三隱閣 設置建立 沿革은 史實로 보기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三隱을 祭享했다는 1399年 定宗元年是 吉再가 壯年으로 生存해 있던 때라 산 吉再를 祭享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冶隱(吉再)은 그를 祭享했다는 年度로부터 21年 뒤인 世宗元年(1491年)에 逝去한다. 따라서 산 사람을 神으로 祭享한 사실은 순전한 虛構임을 不貲한다. 韓末에 金甯漢이 짓고 尹用求가 쓴 三隱閣碑文에 의하면 三隱閣은 前述한 바와 같이 定宗元年에 三隱先生을 祭享하고 翌年인 定宗二年에 三隱閣을 建立했다 한다. 그후 여러번 火災를 입어 廢하여 數百年間 없어진 것을 韓末에 公州의 士林이 重建했다 한다. 이 때 主役을 擔當한 人士는 三隱을 祭享한 柳方澤公의 後孫들인 柳晉錫 柳庠根氏였고 役事를 主管한 人士는 宋柱憲氏였고 山僧 萬愚師의 協贊이 컸다 한다.⁸⁵⁾

이와 같은 三隱閣碑文을 檢討할 때 創建後 數百年間의 「累燬而遂廢」란 數百年의 空白期를 如何히 해석할 것인가, 또 韓末 以前에 거의 三隱閣에 關한 史料가 全無한 事實을 如何히 이해할 것인가의 의문이 떠오른다.

東鶴洞 儒會所通牒과 東鶴寺志에 의하여 三隱閣의 沿革을 考察하면 太祖 2年 甲戌(1394年)에 冶隱 吉再가 이곳 東鶴寺에 들어와서 壇을 設置하여 高麗의 임금과 圃隱의 魂을 招祭하고, 그후 定宗元年(1399年)己卯年에 高麗忠節臣 琴軒柳方澤이 이곳에 들어와서 고려의 君과 圃隱 牧隱의 魂을 招하여 祭했다. 翌年인 定宗 2年(1340年) 庚辰에 李貞幹이 公州知事로 到任하여 와서 三隱閣을 그壇에 세우고 圃隱 牧隱 冶隱을 祭享했다 한다. 그리하여 閣名을 三隱閣이라 했다. 그후 世祖가 受禪後에 梅月堂 金時習이 이곳에 와서 慷慨하여 三隱을 祭享하고 아울러 琴軒柳方澤을 招魂하여 祭했고 다시 丙子年 즉 世祖元年(1456年)에 이곳에 와서 死六臣 朴彭年, 成三問, 河緯地, 李埏, 柳成源, 俞應孚를 招魂하여 祭하고 현판을 바꾸어 慕閣義이라 하고, 六臣壇을 三

84) 金甯漢撰：三隱閣碑文。

85) 上揭文。

隱閣길에 追設했다. 翌年 世祖 2年 丁丑年에 世祖께서 駐驛하서 三隱閣의 出來를 들으시고 興感하여 丙子年의 寬과 高麗朝君臣의 寬을 위르하는 글과 招魂祭를 지내게 했다. 端宗이 昇退後에 梅月堂 金時習이 다시 이곳에 와서 端宗의 魂을 招致하여 祭하였다. 그후 戊寅年 世祖 3年(1458年)에 世祖는 또 글을 내려 端宗과 癸酉節臣을 追付 招魂祭亭에 하고 祭閣을 세우게 命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祭享했다. 그후 壬辰 兵亂으로 불타 없어지자, 光海 13年 1620年 庚申年에 閤이 頽廢하여 없어 辨道房에서 招祭했다. 그후 提學 黃廷詰이 朝野의 公議에 의하여 端宗招魂閣을 重建하고 梅月堂 金時習 等 諸先生을 招祭하고 아울러 慕義閣 옛터에 一閣을 세워 다시 四先生 牧隱 圃隱 治隱 琴軒 公을 享祀했다. 그후 英祖時에 不幸히도 申天永 鄭厚謙의 變으로 兩魂閣과 寺刹이 함께 모두 灰燼되었다. 그후 純祖時에 端宗招魂閣을 舊地에 重建하고 별도로 鶴岩內에 書院을 세워 圃隱, 牧隱, 治隱, 琴軒 四先生을 다시 配享하고 三相 皇甫仁 金宗瑞 鄭萃, 六臣과 朴維林伯 金梅月堂 諸先生을 配享하여 當時의 名臣碩儒가 그 次位를 議定했다 한다. 그후 憲宗 2年 丙申 1836年에 書院이 撤廢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그후 高宗 元年 甲子 1864年에 僧 萬化가 다시 寺刹을 重建할 때 招魂閣을 重修하여 癸酉節臣과 三隱을 配享했다. 光武 8年 甲辰 1904年에 朝廷에서 肅慕殿이라 改額을 命하였다. 그후 頽廢하여지자 乙卯 1915年에 儒生 宋柱憲이 儒林과 의논하여 肅慕殿을 重修하고 따로 四先生 牧隱, 圃隱, 治隱, 琴軒을 祭享할 閣을 重建하니 이를 三隱閣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해에 事蹟碑를 세웠다. 同年 11月 19日에는 肅慕殿 都有司 宋柱憲等이 의논하여 琴軒을 黜享하고 陶隱 李崇仁을 代身에 配享했다. 이것은 星州 大邱 鄉校等 各地의 儒林의 간절한 建議에 의하여 陶隱先生을 祭享해야 한다는 輿論에 屈服한데 起因한다. 그러나 琴軒의 黜享事件은 京鄕儒林의 맹렬한 攻駁을 받고 다시 配享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最終의 五先生은 配享하니 享祀祝文은 다음과 같다.

文靖公牧隱李先生 一心秉義 不移所守 麗季位望 屹如山斗
 文忠公圃隱鄭先生 學能繼開 節難招麾 揭此尊慕 百世之師
 文忠公陶隱李先生 堂堂大義 肅肅遺風 一片其心 百代之忠
 文節公 治隱吉先生 黃花晚節 孤竹清風 君師一禮 祭祀修同
 靖肅公琴軒柳先生 竹軒羅先生配食尚饗

以上이 三隱閣의 沿革이라 하나 韓末 高宗甲子 重建 以前의 事實은 模糊하다. 그리고 三隱閣이란 名稱도 合當치 않다. 그때 各地의 儒林에서는 梅月堂의 舊名에 依하여 慕義閣으로 改額하자는 論議가 盛發하기도 했으며, 1925年 乙丑 2月 24日 善山郡 龜尾面採薇亭 吉氏宗會中에서는 奉祭 吉斗錫外 吉氏 連署로 通文을 보내어 『금번 柳琴軒이 入享하게 된 事實은 오로지 琴軒이 三先生의 招魂祭享事實에 依함이나 이는 잘못으로 己卯年에 治隱은 48才요 歿前二十一年前에 해당하는 잘못이며, 산 사람을

람들은 그를 慕仰하여 牧隱圃隱과 아울러 高麗의 三隱이라 일컬었다.⁸⁷⁾

고 했다. 그리고 또한 治隱을 三隱으로 치는 有名한 學者로는 東洋哲學의 碩學이신 朴鍾鴻博士를 들 수 있다. 朴教授는 그의 名著 韓國思想史論攷에서

李穡(牧隱) 鄭夢周(圃隱) 吉再(治隱)을 三隱이라 하여 모두 유명한 학자이었으나⁸⁸⁾

라고 朴博士는 三隱에 李崇仁(陶隱)이 아닌 吉再(治隱)을 치고 있다.

以上에서 三隱의 號稱 過程을 檢討해 보았다. 거기서 三隱은 牧隱, 圃隱, 陶隱이 妥當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節義에 있어 三隱中에서도 陶隱은 可謂 으뜸이었다. 麗末의 忠臣節義之臣 中에서 陶隱은 實로 泰山北斗의 存在다. 그는 革命之際에 當하여 李成桂派의 不斷한 迫害 中에서도 疾風勁草 처럼 굳굳하게 始終 高麗를 爲한 忠節로 一貫했다. 圃隱은 禡王, 昌王父子 二代 15年間 世祿柱石之臣으로 二王을 섬기다 一朝에 二王을 廢黜하여 斬한 政變에 關係된 累가 있으나, 陶隱은 끝까지 高麗의 忠臣으로 忠節을 지키고, 기우는 國運을 回天코자 盡忠竭力타가 流配되어 杖刑되고 드디어 鄭道傳이 派遣한 黃居正에 殘忍無道하게 無慘히 殺害되었다. 牧隱은 恭愍王의 遺志를 받들어 禡王, 昌王을 섬기고 李成桂의 革命을 反對하여 高麗王室을 불들려고 盡忠竭力타가 가진 迫害를 받아 流配所에서 쓰러진 忠臣이었다. 그의 아들은 무참히 그에 앞지 李成桂派에 殺害되었다.

三隱이 모두 殉節하였으니, 圃隱은 太廟洞口中에서 革命軍에 擊殺되고 牧隱은 革命派에 의하여 교묘히 殺害되었다. 그러나 治隱은 高麗의 忠節之臣으로 찬란히 빛나나, 고려의 祭壇에 鮮血를 뿌리는 丹忠을 바친 바는 없다. 善山 金烏山에서 高麗의 舊臣으로 節義를 지키며, 成均館 同窓인 太宗의 攄직한 友情의 比喩하에 優渥한 尊崇을 받으면서 世宗代에 世上을 마치고 있다. 따라서 道學 文章 經術 殉節에 있어 高麗의 準矩로 尺度할 때 治隱은 三隱의 範疇에서 그 資格이 圈外에 置케 됨을 不免케 된다.

三隱中 圃隱은 列朝의 尊崇으로 東國第一의 忠臣으로 崇仰되고, 陸廡의 光榮과 海東理學之祖란 榮光된 稱號를 받았다. 牧隱은 佛教에 涉獵한 事實을 欠(흠)잡아 學問이 不純하다 하여 文廟從祀도 拒否되었다. 陶隱은 高麗 第一級の 忠臣임에도 불구하고 圃隱의 光芒에 가려지고 治隱을 推舉하는 擧世의 激瀾에 휩쓸려 屹然한 萬古砥柱는 그 빛을 잃어버린 것은 實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三隱에는 治隱 代身에 마땅히 陶隱이 들어야 한다. 그는 忠節 道學 文章으로 麗末에 冠絶한 名賢이기 때문이다. 治隱이 麗末三隱에 든다는 것은 모순된다. 왜냐하면 治隱과 陶隱은 時代를 劃하여 高

87) 金庠基: 高麗時代史, p. 847(東國文化社, 4294年).

88) 朴鍾鴻: 韓國思想史論攷 p. 6(瑞文堂, 1977).

麗末 性理學派의 形成

麗朝와 朝鮮朝의 儒賢으로 截然히 區分되는 明白한 時代性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歷史上에 永世不滅할 道學 忠節 文章의 龜鑑으로 三隱은 永遠히 宣揚되어야 하고, 三隱은 牧隱, 圃隱, 陶隱으로 固定되어야 하며 顯彰되어야 한다.

Ⅶ. 性理學派의 淵源

海東 性理學의 淵源을 麗末의 性理學者 鄭夢周(圃隱)에 두어 그를 東方理學의 祖로 만들어 왔다. 高麗史에 依하던

時諸儒尤加嘆服 李穡亟稱之曰 夢周論理橫說豎說 無比當理 推爲東方理學之祖⁸⁹⁾

라 하고, 奇大升은

以東方學問相傳之次言之則 以夢周爲東方理學之祖 吉再學於夢周 金叔滋學於吉再 金宗直學於叔滋 金宏弼學於宗直 趙光祖學於宏弼 自有源流也⁹⁰⁾

라 하고, 또 그는

高麗末鄭夢周有忠孝大節 以程朱之學爲學 爲東方理學之祖 不幸值高麗將亡之際 殺身成仁 入我朝而傳習鄭夢周者金宗直也 學有淵源⁹¹⁾

라 하였고, 康惟善은

嗚呼光祖之學正 其所傳者有自來矣 自少慨然有述道之志 受業於金宏弼 宏弼學於 金宗直 宗直學傳於其父司藝臣叔滋 叔滋之學傳於高麗臣吉再 再之學得於鄭夢周之門 夢周之學實爲吾東方之祖 則其學問之淵源類此⁹²⁾

라 하였으며, 南公轍은

東方無性理之學 高麗之末 鄭先生夢周始倡明之 我朝諸儒 得以尋繹淵源 典章文物 沿革乎 洛閩洙泗者 皆以先生爲祖 其功誠大矣⁹³⁾

라 하였으며, 朴世采는

鄭夢周度尚道延日縣人 仕高麗官至門下侍中 好學不倦 精研性理之學 深有所得 爲東方理學之祖⁹⁴⁾

라 하고, 張志淵은

89) 高麗史 鄭夢周傳.

90) 奇大升: 高峯論思錄.

91) 奇大升: 請褒贈啓 靜庵集附錄卷三.

92) 康惟善: 仲免疏(嘉靖乙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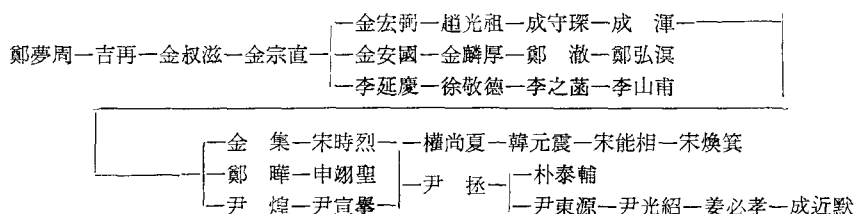
93) 南公轍: 高麗名臣傳.

94) 朴世采: 東儒師友錄.

圃隱即吾東理學之宗祖 而宋儒程朱子氏之學 實濫觴於此也 圃隱傳之于吉治隱再 治隱傳之于金江湖叔滋 江湖傳之于其子佔畢齋宗直 佔畢齋傳之于金寒喧堂宏弼 寒喧堂傳之于趙靜庵光祖 此圃隱以後 理學之嫡派相承也⁹⁵⁾

라 記述하여 鄭圃隱夢周를 東國의 儒學界에서는 그를 海東道學 正統의 淵源之祖로 받아들여왔다. 이를 圖式化하면

1. 理學儒賢淵源圖



와 같이 鄭夢周를 祖宗으로 한 海東 道學의 淵源은 脈脈綿綿히 韓國儒學界를 支配했다. 이와 같은 儒學의 系譜는 吉再의 學을 이은 金宗直이 嶺南學派의 宗師가 되어 그의 門徒들이 크게 떨쳐, 嶺南儒林을 支配하고 士林派로 中央政局을 支配하자 大義明分과 節義를 重視하는 性理學派들에 의하여 그들의 淵源을 李朝의 王室과 儒林의 合作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鄭夢周의 大賢化 忠臣化 作業을 大大的으로 進行하여 趙光祖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文廟從祀까지 하게 되는 尊崇運動의 絶頂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李朝儒學의 理想이던 忠孝와 大義明分論에 合致하는 淵源系譜를 形成시켰던 것이다. 高麗朝廷을 扶持할려다 壯烈히 殉節한 忠臣으로 文忠公 鄭夢周를 그들의 義理之學의 始祖로 삼고, 이의 學統을 이은 者에 不事二君의 忠節을 不屈한 守節之臣에 文節公 吉再를 正統으로 하는 淵源系統을 만들게 되었다. 鄭夢周를 海東理學之祖로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面에서 無理가 없는 바도 아니다. 鄭夢周는 麗末의 鴻儒碩學으로서 性理學의 土着化에 偉大한 功獻을 한 것도 사실이며, 그가 麗末 諸儒中巨擘이었음도 否定키 어렵다. 그렇다 해서 鄭夢周만이 新儒學의 導入과 倡明에 唯獨絶對의 功獻이 있었던가에 對해서는 선뜻 首肯키 어렵다. 麗末에 鄭夢周에 比肩할 巨儒는 여럿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功績에 匹敵할 儒賢도 非一非再왔다. 그러므로 鄭夢周만이 꼭 海東理學之祖가 되어야 할 論理의 成立도 꼭 妥當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오히려 鄭夢周를 凌駕하는 儒賢도 있을 수 있으며, 從來 學界서 推舉한 바와 같이 鄭夢周가 性理學의 淵源의 祖宗이 되고 또 그는 누구의 淵源도 學統도 受業繼承한 事實이 없느냐 하는데는 의심할 餘地가 있다.

95) 張志淵：朝鮮儒教淵源 卷一 p.7.

麗末 性理學派의 形成

海東 性理學의 淵源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무어니해도 海東에 朱子學을 수입하여 이를 傳한 安裕를 始祖로 하는 하나의 系譜를 생각할 수 있다. 安裕의 學을 傳授한 白頤正은 元에 가서 直接 性理學을 배워 왔으니 이 兩人이 海東性理學의 始祖가 될 것이다. 그후 中興의 祖宗은 무어니해도 鄭夢周도 있거니와 그의 師傅였고, 같이 提携하여 麗末 性理學界를 領導하던 文靖公 李穡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나는 海東理學의 元祖는 文忠公 鄭夢周와 나란히 牧隱 李穡에게도 그만큼 稱號를 바칠 수 있다고 본다. 牧隱이야말로 高麗 性理學을 土着化시키는데 貢獻한 最大의 儒賢인 것이다. 그러나 그가 海東理學之祖가 되지 못하고, 鄭圃隱에 양보치 않을 수 없었던 事情은 두 가지 點에서 그의 決定的인 欠으로 李朝儒林으로부터 규탄 받았기 때문이다. 즉 첫째 牧隱은 學問이 不純하고 佛法을 崇信했다 하는 것과, 둘째는 麗朝와 運命을 같이 하는 殉節을 못했다⁹⁶⁾는 點에서 李朝의 儒學者들은 牧隱을 그들의 淵源으로한 海東理學之祖로 받들 수 없었던 것이다. 成宗 年間에 吉再의 學統을 계승한 金叔滋의 아들 金宗直과 그의 門徒들이 士林派를 형성하여 中央 官界에 進出하여 李朝 儒學界를 支配하자, 金宗直에 의하여 圃隱 鄭夢周를 東方理學之祖로 하는 海東理學의 淵源系統이 形成되어 갔다.⁹⁷⁾ 金宗直은 家庭之學을 이어 大成한 儒者로 그의 受學한 先公其父의 學統을

鄉先生吉公再以嘗仕高麗 辭祿於本朝 累微不起 卜築金烏山下 教授子弟 童叟雲集 其教自灑掃應對之節 以至蹈舞詠歌 不使之躋等 公亦往受業焉(公即司藝金叔滋伯公父也)⁹⁸⁾

라고 金宗直은 其父의 學統을 吉再에 두었다. 그후 士林派에서 이러한 그들의 道統意識은 점점 강해져서 士林派의 領袖 趙光祖代에는 그 絶頂에達하여 오늘날과 같은 海東理學淵源學統系譜가 作成되게 되었다. 成均進士 朴謹은 上疏에서

(趙光祖)受業於金宏弼 宏弼受業於金宗直 宗直之學傳於其父司藝叔滋 叔滋之學傳於高麗臣吉再 吉再之學傳於夢周 夢周之學實爲東方之祖⁹⁹⁾

라 하였고, 趙光祖는

如金宏弼雖不願仕於一時 然今之士子 聞其風而欲爲善者亦多 此皆宏弼之力也…金宗直初受業於吉再 吉再鄭夢周之門人也 宗直傳業淵源 固有自矣¹⁰⁰⁾

라 하여 靜庵은 그의 學統을 金宏弼과 東方理學之祖인 鄭圃隱에 脈絡을 잇고 있다. 이리하여 東方理學淵源系譜는 成立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定立 되는데는 李朝 王

96) 高麗史 卷 115 列傳 28 李穡傳.

97) 曹好益: 圃隱集重刊跋文.

98) 金宗直: 彝尊錄下 先公事業第四.

99) 仁宗實錄卷1元年 3年 乙亥條.

100) 中宗實錄卷 32, 13年 4月 丁酉條.

室의 積極的인 後援이 있었다. 儒敎를 新王朝의 指導理念으로 택한 李朝는 儒敎立國을 위한 忠孝를 宣揚하여 王朝의 綱常을 維持確立하기 위하여 殉한 圃隱과 節한 治隱을 忠臣으로 받들게 되었다. 鄭夢周는 太宗代에 와서 文忠의 諡號와 領議政의 贈職이 있게 되고, 世宗은 그의 文集을 出刊케 하였으며, 世宗朝에 吉再가 逝去하자 世宗은 集賢殿副提學 僉僞에 命하여 三綱行實圖를 편찬할 때, 鄭夢周와 吉再를 忠臣傳에 실었다. 그리고 中宗代 文廟從祀時도 趙光祖一派의 請에 對하여 中宗은 積極적으로 이에 同調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鄭夢周, 吉再의 學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李朝 儒學界의 傾向性을 後代 張志淵으로 하여금 朝鮮儒敎淵源에서

蓋安文成傳之白上黨禹易東 上黨傳之李益齋 益齋傳之李牧隱 牧隱傳之權陽村近卜春亭季良
此爲麗朝儒學之源流也¹⁰¹⁾

라 하고, 이와는 별도로

圃隱即吾東理學之宗祖 而宋儒程朱子氏之學實濫觴於此也 圃隱傳之于吉治隱再¹⁰²⁾

라고 하여 麗朝儒學의 源流와 東方理學之祖宗을 分離하고 있다. 이는 圃隱을 東方理學之祖로 받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鄭夢周는 과연 그의 師友淵源이 없이 獨自大成했던가. 그리고 當代의 巨儒 牧隱과의 關係는 如何했던가 하는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안 된다.

먼저 牧隱 李穡에 關하여 살펴 보겠다. 李穡은 麗末에 崛起한 諸儒中에 宛然히 宗匠領袖였다. 그는 元나라로부터 歸國하여 恭愍王께 上疏하여 國學의 重要性을 力說하여 國學의 充實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는 上疏文에서

蓋國學乃國化之源 人材是政教之本 不有興培之 基本未必固 不有以滌之 其源未必清 古之帝王 有令名於天下者 亦致意於斯耳 殿下以生知之資 夙慕聖人之道 痛學校之廢 遂下修葺之令 非惟吾儒之幸 實生民之福也 然其朋徒解散 齋舍傾頽 有由然矣¹⁰³⁾

라고 그는 國學의 振興을 力說하였으며, 同王 16年엔 成均館을 再興시켜 大司成에 任命되어 一世의 쟁쟁한 儒者를 學官으로 任命하여 講義케 하니, 이에 크게 學風이 振作되고 性理學이 倡明되었다. 이를 高麗史에서

十六年重營成均館 以穡判開城府事兼成均大司成 增置生員擇經術之士 金九容·鄭夢周·朴尚衷·朴宜中·李崇仁皆以他官兼教官 先是館生不過數十 穡更定學式 每日坐明倫堂 分經授業講畢 相與論難忘倦 於是學者益集 相與觀感 程朱之學始興¹⁰⁴⁾

101) 張志淵：朝鮮儒敎淵源卷一 p. 6.

102) 上揭書.

103) 高麗史 卷 115, 列傳 第 28 李穡傳.

104) 上揭書.

라고論했다. 이와 같이 高麗末 文風興起와 性理學의 勃興은 실로 李穡의 功勞였다. 李穡은 麗末에 蔚然히 群起한 儒士中 斷然 宗師巨匠으로서 麗末 性理學界를 領導하던 領袖요 命世의 儒宗이었다. 當代文運을 이끌던 諸子는 모두 그의 門徒들이었다. 權近은 鄭三峯文集序에서

吾家文正公 始以朱子四書立白刊行 勸進後學 其甥益齋李文忠公 師事親炙 以倡義理之學 爲世儒宗 稼亭樵隱諸公從而興起 滄菴白公闢異端尤力焉 吾座主牧隱先生早承家訓 得齒辟雍以極正大精微之學 既選儒士皆宗之 若圃隱鄭公・陶隱李公・三峰鄭公・潘陽朴公 茂松尹公 皆其升堂者也 三峯圃隱陶隱尤相親善 講論切磋 益有所得¹⁰⁵⁾

라는 記述과 鄭道傳이 陶隱集序에서

今牧隱李先生蚤承家庭之訓 北學中原得師友淵源之正 窮性命道德之說 東選延引諸生 其見而興起者 烏川鄭公達可・京山李公治安・晉陽河公大臨・潘陽朴公誠夫・永嘉金公敬之 密陽朴公子虛・永嘉權公可遠・茂松尹公紹宗 雖以予之不肖亦獲廁於數君子之列¹⁰⁶⁾

라 하는 글과 若齋遺稿序에서

國家崇重正學 更張舊制 增廣生員宰相韓山李公主盟師席拔薦名儒爲學官 而先生以他官兼直講¹⁰⁷⁾

라는 글과

牧隱先生主盟吾道 以興起斯文爲己任 有憂於此 其亦久矣 今稱達可則曰豪爽卓越 子虛則曰縝密精切 蓋亦樂得英才 深喜之之辭也 古人於斯文之興喪 未嘗不推之於天 而以得人爲難 今二子之遇先生天也 先生之得二子亦天也 先生曰斯文之興 子虛既興其始 當與子虛終之是天也 吾數人者聽命於天而已 此其所喜者甚至 而所期者亦遠矣 二子勉矣哉¹⁰⁸⁾

라는 글을 볼 때 麗末에 있어서 性理學의 倡明과 文教의 復興과 儒學淵源이 實로 牧隱에 있음을 否定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佛法을 崇信하고 大藏經을 印成했다 하여 學問이 不純하다는 攻擊을 받아 李朝初期에 그의 地位는 짝기게 되고, 그 榮譽는 圃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國家革命之際에 그의 忠節도 의심하게 되어 忠臣인 鄭夢周에 淵源之正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것이라고 본다. 그는 佛敎를 排斥하되 그 폐해를 배척한 것이지 그 敎理를 肯定的으로 理解한 牧隱의 폭넓은 學的 태도가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 朱子는 高僧과 交際하고 佛敎의 영향으로 그의 學問이 完成된것을 생각할 때 그리 欠되는 것은 아니다.

海東理學之祖라 칭하는 鄭夢周도 佛敎를 理解하고 있었던 것은 事實로서 牧隱과 다

105) 權 近: 鄭三峯道傳文集序(東文選 卷之 90, 陽村集 卷十六).

106) 鄭道傳: 陶隱文集序(東文選 卷之 89, 三峯集 卷之三).

107) 鄭道傳: 惕齋遺稿序(東文選卷之 89).

108) 鄭道傳: 子虛詩序卷後題(東文選卷之 103).

를 바 없었다. 따라서 유독히 李穡만이 倭佛로 지탄받을 것은 없다고 본다. 牧隱이야말로 當代 第一의 儒宗이었고, 그의 斯文에의 功은 斷然코 高邁하여 他의 追從을 不許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門徒들에 의해서 麗末의 性理學이 開花하게 되었고, 李朝의 儒敎立國의 主役이 담당되고, 李朝 初期 官學과 儒敎政治의 主人公들이 배출되었다는 事實은 牧隱으로 하여금 海東理學之祖란 名譽를 갖게 하는데 하등의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牧隱의 道統 師友淵源과 그의 門人을 體系세워 보던,

牧隱은 그의 學을 學庭에서 受學하여 稼亭李穀의 學統을 傳受함과 同時에, 그는 其父稼亭과 함께 當代의 名儒 益齋 李齊賢으로부터 受學하기도 하였으며, 樵隱 李仁復을 師傳로 모시기도 하였다. 그의 師 益齋는 學을 白頤正과 權溥로부터 受業했다. 白頤正과 權溥는 다 같이 晦軒 安裕의 門人이었다¹⁰⁹⁾. 따라서 海東 儒敎淵源의 始祖는 安裕에 發源한다. 그리고 李朝儒學의 淵源은 鄭夢周와 함께 牧隱李穡이어야 함은 再言을 不要한다. 李穡의 門人으로는 麗末鮮初에 綺羅星과 같이 찬란한 名儒碩學이 網羅되었다. 鄭夢周, 李崇仁, 鄭道傳, 尹紹宗, 權近, 鄭摠, 吉再, 金九容, 朴尚夷, 朴宜中, 柳伯儒, 李詹, 金子粹, 孟希道, 卞季良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모두 一代文運과 斯文에 有功한 主役들이었다. 鄭夢周가 牧隱의 弟子임은 前記한 陽村三峰의 記述에서도 明白하다. 東儒師友錄에서 朴世采는 鄭夢周를 李穡의 門人이라 했다.¹¹⁰⁾ 따라서 獨立門戶하여 獨學大成했다는 鄭圃隱의 淵源은 修正을 不可避하게 한다. 그렇다고 圃隱이 海東理學之祖란 稱號는 搖之不動이다.

圃隱의 學統을 계승했다는 治隱 吉再의 學統도 꼭 圃隱의 學統만을 계승한 것은 아니다. 治隱의 行狀에 依하면 그는 18歲에 尚州司錄朴賁의 門下에서 受學하고 그후 上京하여 李穡 鄭夢周 權近의 門에서 修學하였다고 했다.¹¹¹⁾ 그리고 治隱은 李芳遠(太宗大王)과 成均館同學이었으며, 直講과 司成이던 陶隱에 受學했다. 太宗은 禡王 8年 壬戌 4월에 知貢舉 李崇仁에 의하여 國子監試에 取選되었으니, 그는 太宗과 함께 陶隱 李崇仁의 門人이다.¹¹²⁾

治隱은 棄官落鄕할때 그의 尊敬하는 恩師 牧隱先生을 長湍 別邸에 찾아 보아 거취를 상의 지도 받고 여기서 하루를 留하고 牧隱의 뜻에 따라 그의 애뜻한 전별의 詩를 받고 영원히 고향으로 은퇴했다. 그는 禡王의 臣下로서 不事二君의 忠節을 지키 李成柱, 鄭夢周가 세운 恭讓王의 朝廷을 떠난 것이다. 떠날 때도 오히려 政見과 路線

109) 權近: 三峰文集序(陽村集).

110) 朴世采: 東儒師友錄目錄卷之二.

111) 治隱先生言行拾遺.

112) 權近: 題吉再先生詩卷後序에 我國家之未受命也 殿下方入學讀書 有大學生吉再者以同里門相從講磨 情意甚疑(陽村集, 卷之 20).

陶隱李先生 崇仁文集序에 我主上殿下之在潛邸登其科目 嗣位之後每臨經筵悼念甘盤之舊(陽村集, 卷之 20).

高麗史卷 77志卷 第 28選舉2에 辛禡王 8年 4月 上護軍 李崇仁取 李升商 等九十九人.

을 달리하던 鄭夢周에 一言半句의 상의와 別離가 있었을지 萬無했다. 그는 歸鄕하여 金烏山下에 塾居할 때 그가 섬기던 禍王이 李成桂 一派에 弑害되자 呼哭을 하고 三年喪을 살았으며, 그의 스승 權陽村近과 朴黃의 喪에 弟子의 禮로 心喪三年을 살았는데, 鄭夢周의 喪에는 一言半句의 言及이 없다. 있을 수가 없었으리라. 秋江 南孝溫은 金烏山을 지나다 詩를 지으니

辛朝注書吉治隱 秀於嚴霜清於水
鴻毛命輕義重山 公與達可知此理
達可身輕二姓王 杞梓寸朽鑑中疵
公身所委唯一君 眞知獨行誰與比¹¹³⁾

라 했다. 南孝溫은 吉治隱을 칭찬하여 목숨은 기러기 털 보다 가볍고 義는 산보다 무겁다 하고, 達可(鄭夢周)는 이 이치를 알면서도 二姓의 王을 섬겼으니 좋은 재목에 한 치가 썩었고, 거울 가운데 티가 있으나, 治隱의 몸 맡긴 곳은 한 임금 뿐이니 신실로 알고 똑똑히 행함은 비할 이가 없다고 찬양 했드시, 圃隱과 治隱은 서로 路線이 달랐던 것이다.

治隱은 牧隱에 배우고 또 牧隱에 受學한 陽村에 배웠으니 무엇보다도 李穡學統의 弟子였다. 오히려 鄭夢周 系統과는 인연이 多少 멀다고 보겠다. 實際로 吉再는 牧隱에 受學했음에도 그의 師傅 權近의 恩門인 牧隱보다도 陽村의 弟子임을 自處하고 또 가장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道統은 별도로 牧隱→陽村→治隱으로 系譜를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李朝 國初의 王室과 儒林은 이 계보를 싫어하고 圃隱→治隱의 系譜를 意圖的으로 創出했던 것이다. 그래야만 忠義를 崇尚하던 王朝과 儒林의 理想에 符合하기 때문이었다¹¹⁴⁾.

高麗時에 師友淵源을 論하면, 물론 그 門下에 나가서 책을 펴고 受學하는 경우와 또 私塾하는 경우, 그리고 科擧를 볼 때 選舉取材한 시험관인 知貢擧가 스승으로 존경받아 座主 恩門 또는 師傅라 稱했다.

門人錄

晦軒 安裕門人

辛葢(號德齋, 政堂文學), 白頤正(上黨君, 彝齋), 權溥(菊齋, 領都僉議司事 永嘉府院君), 禹倬(易東 成均祭酒) (以上 東儒師友錄), 李璵(東庵), 李兆年(星山君) 李晟 尹宣佐 尹安庇 徐顗 許冠(以上 典故大方)

彝齋 白頤正 門人

李齊賢(益齋) 朴忠佐(耻齋耻庵),

菊齋 權 溥 門人

李穀(稼亭), 李仁復(樵隱), 白文寶(淡庵) (以上 師友淵源錄), 崔文度, 閔思平, 李傑, 全信, 朴元桂(以上 典故大方), 李齊賢(益齋)

益齋 李齊賢 門人

113) 南孝溫: 秋江集 卷之二.

114) 陽村 權近은 高麗遺臣으로 守節치 못하고 鵲龍山頌을 짓고 變節하여 李朝에 버슬했다.

李穀(稷亭), 李穡(牧隱), 鄭樞, 田正夫, 安双清

樞隱 李仁復 門人

李穡(牧隱), 權近, 河崙

稷亭 李穀 門人

李穡(牧隱), 李仁復(樞隱), 李釋之, 白璘

牧隱 李穡 門人

鄭夢周(圃隱) 李崇仁(陶隱) 鄭道傳(三峰) 吉再(治隱) 金九容(惕若齋) 朴尚衷(字誠夫) 朴宜中(貞齋) 河崙(浩亭) 尹紹宗(桐軒) 劉敞(仙庵) 崔彪, 鄭可宗 權近 柳伯儒(壯元) 金震陽 金子粹(壯元) 孟思誠(壯元左相) 卞季良 孟希道 李愚 鄭寓 宋文貴 趙瑠 劉敬 李文和(壯元) 朴仁乙 李詹(集賢殿 大提學) 閔安仁 李種德 李種學 李種善 李廷備 沈溫(領相) 鄭坤趙洵

李種學 門人

金汝知 文燾 金梧 高進 安純 崔匡之 黃訥 吳乞濟 閔進 柳潤 玉斯溫 卓愼 黃喜(龍村) 權增 曹尚周 李季洪 張養 崔克孚 陳自誠 崔直之 鄭之雅 崔渭 柳漢 安允時 金履祥 任卜童 權可均 李伊魯舒 李之柔 任衡 姜淮季 黃鉉

圃隱 鄭夢周 門人

禹洪命 權遠(遇)(號梅軒) 王裨 李室 崔宣 朴信(贊成事 大提學) 咸傳霖(開國功臣 大司憲 東原君) 琴克諧 韓尚德 李敢 鄭道復(道傳弟) 李種 李原(領相, 佐命功臣) 卞季良(文肅公 大提學) 李膺(佐命功臣, 永陽君, 兵曹判書) 楊遇 尹煥 具宗之(參判) 全自知(刑曹判書, 諡文靖) 朴錫命(佐命功臣, 知義禁府事 平陽府院君 諡文肅) 尹思齊 李伯特 吳報 李芳衍(太祖季子) 崔寔 李孟珣(吏判, 贊成 大提學) 趙休 韓天童(判書) 李希類 文允慶 周迺 盧龜山 趙宜璫 任公綽 崔鑄 河演(領相) 李陽昭 趙肅(文貞公)

三峰 鄭道傳 門人

李致 金紹 朴希文 鄭包乘 朴崙 崔演 金峙 鄭井 姜魯 韓殷 南夏 金思敏 安堵 孟思謙 金祖 金恥 金科 張允和 郭陽 鄭處 鄭需 朴溪 朴寬 文中庸 李章 梁仲寬 崔宏 安從約 尹逢 朴軒 趙啓生 李師旦 申商 金益精 李種華 李明德 琴柔 河演(領相 文孝公) 曹由仁 殷汝霖 郭存中 金沙 韓彝 尹祥(大司成 提學) 韓臯 柳顥 沈道源(刑判) 李敬生 許愷 金謙 鄭堦 庾順道 徐倫 金從理 盧異 李從 鄭餘 金再思 鄭載 韓承顏 柳蒙 郭德淵 閔義生 尹發 曹仲林 李隨

陶隱 李崇仁 門人

李存吾(石灘) 李芳遠(太宗大王) 卞季良(春亭 大提學) 韓有紋·李升商·吉再(治隱)

治隱 吉再 門人

金叔滋(江湖) 金特(府使) 朴瑞生(大司憲) 吉久(生員 先生弟) 崔雲龍(佐郎) 吉師舜(先生子) 金克一(慕菴 諡節孝) 曹尚治(靜齋 副提學 端宗節義臣)

陽村 權近 門人

金從理(直學) 許稠(敬菴 文敬公) 孟思誠(古佛 文貞公) 姜淮伯(通亭) 崔道之(都事) 崔得之(少尹) 崔德之(烟村) 權遇(先生弟) 權蹏(先生子) 卞季良 孟思道 李敢 惠直(僧) 尹淮 李原(容軒 大提學 左相) 韓有文 吳直夫(壯元)

浩亭 河崙 門人

卞季良(春亭 文肅公 大提學) 尹淮(清香堂, 大提學, 文度公, 紹宗子)

梅軒 權選(梅軒) 門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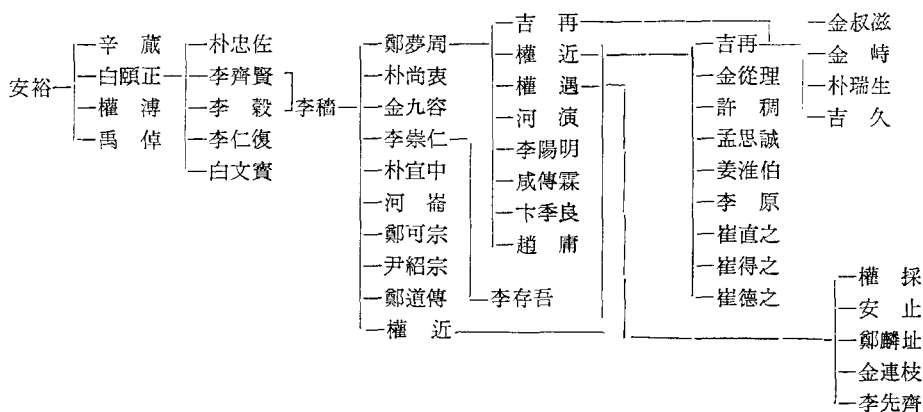
權採(承旨) 安正(文靖公) 鄭麟趾(文成公, 領相) 金連枝(戴敬公) 李先齊(提學)

春亭 卞季良 門人

鄭陟 權孟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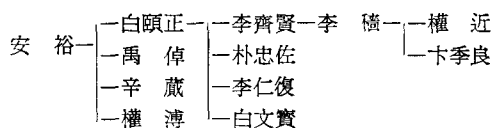
儒賢淵源圖

(1) 東儒師友錄(朴世采)



(2) 朝鮮儒教淵源

1. 麗朝儒學源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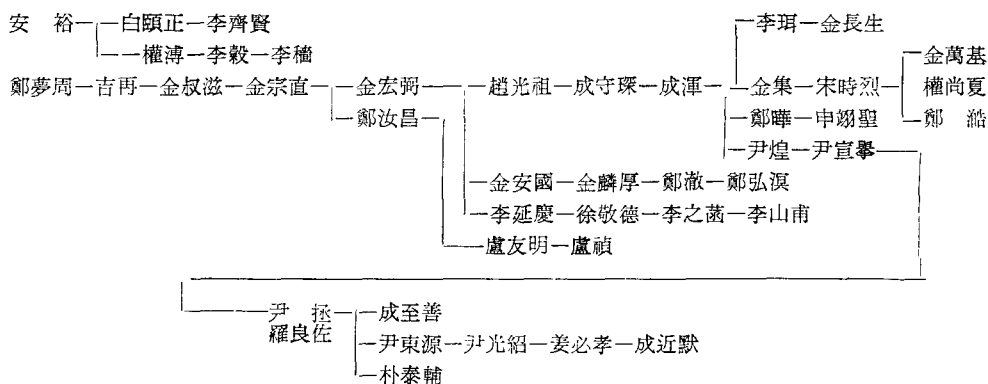


2. 海東理學道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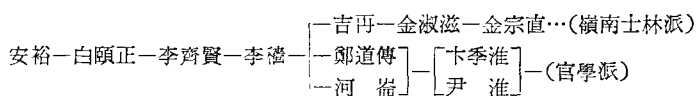
鄭夢周—吉再—金叔滋—金宗直—金宏弼—趙光祖

(3) 典故大方

儒賢淵源圖



(3) 源淵圖



(4)

安裕—白頤正—李齊賢—李穡—李崇仁—
—卞季良
—太宗(李芳遠)
—吉再……………士林派
—李存吾
—韓有紋
—李升商

〕官學派

參 考 文 獻

- | | | |
|--------------------|-----------|------------|
| 高麗史 | 新增東國輿輿地勝覽 | 朝鮮王朝實錄 |
| 高麗史節要 | 國朝科榜錄 | 京山志 |
| 牧隱集 | 典故大方 | 浩亭集 |
| 圃隱集 | 東國通鑑 | 治隱集 |
| 益齋亂藁 | 東文選 | 海東釋史 |
| 陽村集 | 東儒師友錄 | 外論文多數 |
| 三峰集 | 朝鮮儒教淵源 | 高峰集 |
| 陶隱集 | 名臣錄 | 湖岩全書 |
| 遁村集 | 國朝人物考 | 韓國文化史大系(高大 |
| 清選考 | 朱子大全 | 民族文化研究所) |
| 朴鍾鴻：韓國史想史論攷 | 東史綱目 | 秋江集 |
| 裴守篤：韓國儒學史 | 朱子大會 | |
| 李相殷：儒學斗東洋文化 | 靜菴集 | |
| 金得攄：韓國思想史 | 佔傳齋集 | |
| 李乙浩：韓國改新儒學史試論 | 拙藁千百 | |
| 友枝龍太郎：朱子の思想形成 | | |
| 退溪集，栗谷全書。 | | |
| 韓國史(震檀學會)，李丙焄：斗溪雜筆 | | |
| 李丙焄：高麗時代の 研究。 | | |
| 阿部吉雄：日本朱子學と朝鮮 | | |
| 楊榮周：中國古代思想史 | | |
| 黃公偉：宋明清理學體系論史 | | |
| 李樹健：嶺南士林派의 形成 | | |
| 玄相允：朝鮮儒學史 | | |
| 燃藜室記述 | | |
| 徐首生：善州儒學史 | | |
| 韓永愚：鄭道傳思想研究 | | |
| 李相佰：朝鮮文化論攷 | | |
| 慵齋叢話 | | |
| 李能和：朝鮮佛教通史 | | |
| 武田義雄：支那思想史 | | |